청종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2026년 10

루계:31
http://www.lzchongsong.com





인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주는 의료봉사기지

평양종합병원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01---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였다
04---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 경축공연 진행
05---《무인항공기술발전-２０２６》전시회 성대히 진행
07---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에 즈음하여 제２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09---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８０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11---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총련합회소식

13---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14---조선로동당창건81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행사진행
18---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동지일행 조국방문
19---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에 즈음하여
21---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을 맞으며 본부일군들 참전용사들을 위문
22---**김일성-김정일**기금 기부증서를 수여
22---훌륭한 협회와 지부가 되기 위하여
23---庆祝朝鲜劳动党建党 81周年
24---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맞으며
25---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을 참관하고

조국소식

26---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27---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안아온 풍작의 기쁨
28---평양제２사범대학 준공식 진행
29---《전국피복, 신발전시회-２０２６》련일 성황리에 진행
31---《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２０２６》우리 선수들 ２６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４１개의 메달 쟁취
31---새로 건설된 불고기전문식당들 준공
32---많은 꿩과 노루를 놓아주었다
33---국제축구련맹 ２０２６년 ２０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소식
33---신계군에서 새집들이경사

동포소식

34---《사이프 천우컵》 민족식 씨름대회 연길해란강민속원에서
35---연변주 총인구 공포! 남녀 비률은→
36---조선족 농악무와 음식 본계시 10대 민속문화에 입선

중국소식

37---중국로농홍군장정승리 ９０돐 기념대회 베이징에서 진행
37---중국인민은행, 인민페 환률 관련 정책립장 발표
38---최신! 2025년 전국 출생인구 792만명
39---6개 수자로 읽는 홍군 장정!

조중왕래

40---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 진행
42---황해북도 신평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준공식 진행
43---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 여러곳 참관
43---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의 영웅적위훈

국제소식

45---긴장상태가 날로 악화되고있는 흑해
46---예멘 후티무장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석유시설 공격
46---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살륙만행

상식

47---발해국의 시조 대조영
48---수명연장 1위 운동 공개!
49---阿 基 米 德
50---예 멘
53---말소리흐름과 문장의 발음

련재소설

55--- 장편소설 림 꺽 정

앞표지:인민의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로동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에 즈음하여 10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동시를 방문하시고 《항미원조기념관》을 찾으시였다.

《항미원조기념관》은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의 리상실현과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참다운 동지적관계와 전투적우의를 맺고 세기와 세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시켜온 조중우호의 성스럽고도 훌륭한 력사와 불패의 단결을 길이 전하며 두 나라 인민을 언제나 가까이 세워주는 위대한 친선의 기념비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김성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제1부총리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여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재룡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주요지도간부들과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룡남동지가 동행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출병지이며 피로써 맺어진 조중 두 나라 친선단결의 출발지인 력사의 땅을 찾으시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하기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가 현지에 나와있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동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장 류해성동지, 외교부 상무부부장 마조욱동지,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허곤림동지, 단동시당위원회 서기 장빙동지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지도간부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가 나와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중나온 왕호녕동지와 중국측 간부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변강도시를 방문하신 **김정은**동지께 귀여운 어린이가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조중량국국기를 흔들며 국가수반을 환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정적인 환영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항미원조기념탑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위대한 년대와 력사에 경건한 경의를 표하며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불멸의 공적을 추억하는 성심이 담긴 꽃바구니가 항미원조기념탑에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영원히 기억할것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억하시며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중국인민과 함께 싸운 영광의 년대를 영원히 기억할것이며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에 대한 영원한 감사를 대를 이어 전해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호녕동지의 안내를 받으시며 《항미원조기념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력사의 화폭이 생생한 기록전시자료들과 수많은 전시품들을 보시며 《항미원조기념관》은 불패의 조중친선에 대한 고귀한 피의 검증이라고 하시면서 시련을 함께 헤친 훌륭한 력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고수하며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을 영원히 굳건히 계승해나갈 우리 당과 정부, 우리 인민의 의지를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항미원조기념관》 참관을 기념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사진문헌기념판을 선물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진문헌기념판에 《위대한 력사의 화폭속에 평화를 수호한 정의로운 넋과 정신이 고동하고있다. 두 나라의 지경을 한지맥으로 이어놓은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발자취를 경건히 추억하며 영원한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김정은 2026. 10. 24》 이라는 친필을 새기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관을 마치시고 왕호녕동지와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출병지에서 위대한 년대와 력사를 경건히 추억하는것은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로 된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의 귀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순간이였다, 우리는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우리 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력사를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것이며 조중친선의 력사를 줄기차게 굳건히 이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의 방문에 특별하고도 세심한 관심을 돌려준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해줄것을 부탁한다, 또한 단동시와 료녕성의 따뜻한 환대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닌 높은 국제적권위와 존엄은 중국인민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분투하고 투쟁하여 쟁취한 응당한 결과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린방에서 이룩되고있는 괄목할 성과들은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고무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왕호녕동지는 습근평총서기동지가 **김정은**총비서동지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정중히 전하면서 총비서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단동시를 방문하시여 《항미원조기념관》을 참관하신것은 전통적인 중조친선과 전투적우의를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습근평동지의 특별지시에 따라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을 환영하여 왕호녕동지가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는 시종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속에 진행되였다.

이날 **김정은**동지께서는 단동시뻐스공장을 참관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책임일군이 맞이하였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김정은**동지를 따뜻이 환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참관하시고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제품들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훌륭한 력사와 잠재력을 가진 공장이 보다 큰 성공을 이룩하기를 기원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기술집단과 로동자들의 혁신과 분투의 줄기찬 경주에 진심의 성원을 보낸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중압록강다리를 통하여 귀로에 오르시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동지와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지도간부들이 다리의 중간지점까지 동행하여 귀국하시는 **김정은**동지를 전송해드리였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김정은**동지를 환송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송나온 왕호녕동지에게 존경하는 습근평총서기동지에게 보내는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 준공된 다리의 중간지점에서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더 굳게 잇는 력사적인 사명을 의심할바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왕호녕동지와 조중압록강다리에서 기념촬영을 하시고 중국측 지도간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중국당과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약적발전의 로정을 더욱 훌륭하고 풍만한 성공들로 가득 채우며 이어나갈것을 충심으로 축원하시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에 즈음한 **김정은**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방문은 가장 진실한 혈연적뉴대와 참다운 동지적관계로 굳건한 조중친선단결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각인시킨 의의깊은 계기로 력사에 기록될것이다. (끝)

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 경축공연 진행

주체혁명의 위대한 향도자, 필승불패의 전위대인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의 신뢰심이 뜻깊은 １０월명절과 더불어 더욱 승화되고있는 속에 당창건 ８１돐 경축공연이 １０월 １０일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공연장소에는 백두에 날리던 붉은 기폭에 인민의 모습을 새기고 장엄한 출발을 뗀 그날로부터 장구한 기간 추호의 탈선이나 변색도 없이 세계유일무이의 혁명적 성격과 본태를 확고히 고수하며 이 땅의 모든 세대들이 숙원해온 존엄과 영광의 시대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성스러운 건당사와 불후할 공적에 대한 뜨거운 회억과 경의심이 차넘치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영광과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당창건일을 맞이한 전체 참가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 일군들, 시안의 창작가, 예술인들, 청년학생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서곡 《조선로동당 만세》,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인민적인 로동당송가들과 애국의 노래들을 성악과 무용, 교예와 체조, 군악례식과의 예술적 조화속에 형상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인민의 신성한 체험이 낳은 우리당 찬가들을 열창하며 출연자들은 장장 ８０여성상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사회주의위업의 초행길을 헤쳐오면서 이 땅우에 인민의 꿈과 리상에 충직한 존엄높은 국가를 일떠세우고 세기와 년대들을 이어 세인을 놀래우는 거창한 기적과 전변들을 창조하여온 조선로동당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만고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숭고한 리념을 실현해나가는 려정우에 세계최장의 집권사를 아로새겨온 조선로동당의 위대함과 강대성에 대한 자부가 뜨겁게 마쳐오고 우리 위업을 가장 곧바른 승리의 항로에로 확신성있게 이끄는 예지로운 정치적참모부를 가진 크나큰 영광과 행운을 감명깊게 되새겨주는 명곡들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어머니 우리 당을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원대한 포부를 견결히 성취해나갈 인민의 열렬한 지향과 열정으로 충만된 다채로운 종목들이 련이어 무대에 펼쳐졌다.

종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로 막을 내린 공연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이 향도하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언제나 정의와 진리의 길이고 마중하는 미래는 끝없이 아름답고 창창할것이라는 신심과 락관을 배가해주었다.

이 세상 끝까지, 세월의 끝까지 진함없을 신념의 노래, 애국의 노래들로 충만된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연성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며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 경축공연은 온 나라 인민이 환호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명절, 가장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끝)

《무인항공기술발전-２０２６》전시회 성대히 진행



성스러운 부국강병의 력사적위업을 위대한 승리와 줄기찬 전성에로 향도하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절대적힘을 세계의 정상에 긍지높이 떠올리는 급진적인 국방발전시대, 공화국군사력의 최전성시대를 장엄히 펼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의 현대성과 군사기술적강세를 끊임없이 고도화해나가는 투쟁려정에 또 하나의 괄목할 페지를 아로새기며 《무인항공기술발전-２０２６》 전시회가 １０월 ２９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시회장에는 각이한 류형의 전략 및 작전전술급 다목적무인기들과 자폭무인공격기들을 비롯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의 최신성과들과 발전전망을 보여주는 전투체계들이 전시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시회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군수공업부문과 국방성의 지도간부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춘룡동지가 기념행사발언을 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무인화, 지능화된 우리식의 무인전투체계들을 개발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에 따라 최근에 달성한 성과들의 집합체이라고 하면서 그는 무인항공공업부문에서 새로 개발한 각종 무인기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의 군사력에서 중요구성부분으로 되는 무인항공기술분야의 잠재적발전성을 직관할수 있는 이번 전시회의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인기분야에서의 절대적우세를 목적하는것은 현대전의 변화양상에 따르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하시면서 무인항공기술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위한 우리 당의 국방발전전략과 그 실현을 위한 국가적인 중대조치들을 발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평화와 힘은 분리할수 없는 관계에 있다, 평화의 가격은 수자로 매길수 없는것이며 따라서 부유한 나라도 돈으로 지키지 못하는것이 평화이다,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 이것은 오늘의 분주한 세계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상식이다, 우리가 핵보유국의 기능을 점거하고 상용무력강화에서도 비약적인 갱신을 이룩해가고있는것처럼 나라의 과학계가 총분기하여 무인항공기술분야, 국방인공지능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제시하신 력사적인 국방발전대강에 접한 당과 정부, 국방기관의 지도간부들과 전체 교육 및 과학계는 열렬한 지지를 표시하며 절대적힘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 자주적존엄과 발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적결실로써 충직하게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무인전투체계들을 보시면서 우리 무력을 현대전쟁에 상응한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도약시키는데서 무인항공기술의 발전이 가지는 중요성과 군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무인무장장비들이 전쟁의 주되는 군사활동자산으로 등장하고 그 리용범위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있는 현실적발전추이에 맞게 이 분야의 핵심기술고도화와 무인무장장비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및 작전능력고도화를 무력현대화건설에서의 최우선적인 중점과제로 계속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연구부문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공화국무력의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뒤받침하는 자립적방위산업의 지속적이며 독보적인 진보로 군사력강화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해야 하며 그 전략적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국방과학의 경이적인 발전상을 직접 체감하면서 참가자들은 긍지와 자부심속에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이어 《무인항공기술발전-２０２６》전시회를 기념하여 각종 무인기들과 중요무기체계들의 위력시위가 있었다.

위력시위에서는 각이한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전술순항비행탄사격, 다목적무인기의 공습, ６００㎜다련장방사포병대대 사격이 진행되였다. 전술자폭무인공격기들과 다목적무인기에서 발사된 공중대지상미싸일들, 순항비행탄들은 섬표적을 １００％의 명중정확도로 정밀타격하였다.

이날 일명 《저격수》라고 불리우는 초정밀 ６００㎜대구경방사포의 전투사격이 처음으로 직접 군중앞에 공개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세계유일무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핵심전략무기체계의 거대한 위력을 접하며 열광적인 박수로 긍지감을 표시하였다.

모든 중요무기체계들의 전투적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강력하고 정의로운 전쟁억제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평화로운 삶, 사회주의발전환경을 굳건히 수호해나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드팀없고 불변한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시였다.《무인항공기술발전-２０２６》전시회는 세계최강의 강군건설을 목표한 나라의 국방력발전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로동당 제９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력사적투쟁에 매진하고있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것이다.(끝)

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에 즈음하여 제２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 성대히 진행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며 우리 국가의 강대함을 억척으로 다지고 전면적국가발전의 새시대, 강국건설의 새 전기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조선로동당에 대한 온 나라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심이 １０월의 조국강산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８１돐에 즈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２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이 개관되였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억세게 떠메고 견결한 자주적신념과 결단, 피타는 심혼과 뜨거운 열애로 엮어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국방공업령도사와 그 위대한 산아들이 집대성되여있는 국방혁명박물관은 조선인민의 강인한 정신과 투철한 혁명의지, 우리 국가가 지닌 절대의 힘을 과시하는 만년대계의 대국보관이다.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１０월 １１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개관식장에는 탁월한 군사전략사상과 비범특출한 령도, 위대한 헌신과 완강한 실천집행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력의 최전성시대를 열어놓으신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넘쳐흐르고있었다.

국방성중앙군악단이 특색있고 기백있는 군악례식을 선보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당, 우리 국가와 인민의 강대성과 영웅성의 상징이시며 거룩한 존엄과 빛나는 영예의 대표자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국방공업부문 지도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 군종사령관들, 주요대련합부대 지휘관들, 건설자들, 국방혁명박물관 일군, 종업원들이 개관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우리 군대에 배비된 무장장비들에 대한 화면편집물을 시청하였다.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１부부장인 김정식동지가 연설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개관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개관식참가자들과 함께 박물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온 주체적국방공업의 성스런 력사와 국방현대화를 위한 개척과 초행의 간고한 행로에 새겨진 만단사연들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국방혁명박물관은 우리 국가의 존엄과 안전,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불멸의 문헌고이며 국보중의 국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혁명박물관과 같은 혁명재보는 조국과 후대들앞에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순간도 멈춤없이 줄기차게 걸어온 조선로동당만이 가질수 있는 위대한 사적이며 스스로 자기를 지킬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지닌 강대한 국가와 인민만이 세울수 있는 고귀한 기념비이라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 국방공업이 도달한 높이는 조선의 정신과 힘, 조선사람의 슬기로 전취한 영광과 명예의 정상이며 혹독한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국방발전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해준

우리 인민의 강인성과 애국충정이 안아온 값비싼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을 절대사명으로 하여 탄생한 우리 당에 있어서 세계최강의 국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응당한 천직이고 특유의 활동방식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국위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한층한층의 디딤돌이 되여주는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독보적인 발전과 진화의 로정을 경과하며 더욱 줄기차게 개발완성될것이며 박물관의 규모와 내용은 나날이 확대풍부화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이 우리 당의 혁명력사관을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우리 국가의 자위국방건설사를 길이길이 전해가는 조선로동당의 붉은 선전원, 사상적근위병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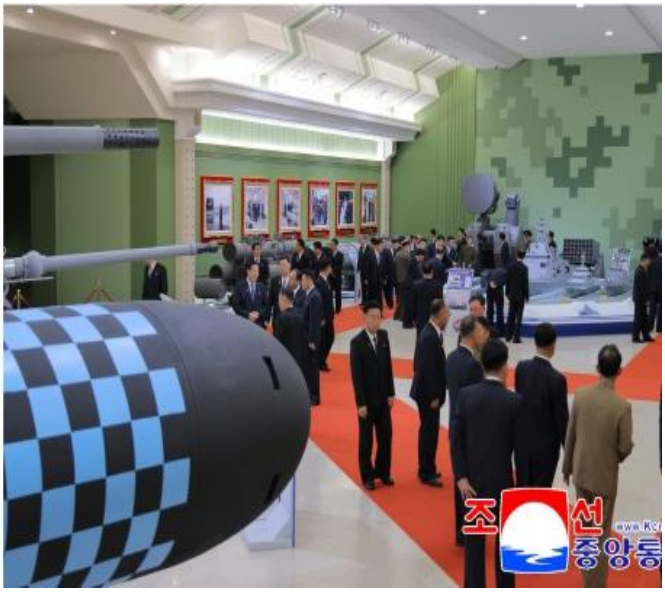
참관자들은 향도의 당 조선로동당이 조선혁명을 인도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철의 진리와 우리당 자위로선의 생활력을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자위국방을 주권수호와 국익사수, 혁명발전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부국강병의 성업실현을 위한 력사적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며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위대성을 힘있게 떨쳐가시는 **김정은**동지의 혁명령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８０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가장 존엄높고 관록있는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이 영광스러운 ８０년의 연혁을 긍지롭게 아로새기고있다.

건국의 초행길에서 인민의 첫 대학으로 태여나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력사적사명에 변함없이 충실하며 우리 당과 국가의 핵심골간들을 키워내는 혁명인재육성의 원종장, 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최고학원으로서의 높은 권위와 명성을 떨쳐온 **김일성**종합대학의 특출한 공적은 주체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떠받드는 굳건한 초석으로 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９월 ３０일 창립 ８０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

뜻깊은 창립정주년에 오매에도 그리며 뵙고싶던 원수님을 교정에 모시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게 된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유서깊은 룡남산지구는 끝없이 설레이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대학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을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민적인 선진교육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강력히 견인하는 혁명적이며 애국적인 교육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주시며 오늘은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 따뜻한 축복을 안고 대학을 찾아주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경의와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를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김승찬동지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 대학의 교육일군들이 전체 교직원, 학생들의 다함없는 신뢰심과 한결같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교육정책관철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진함없는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며 혁명인재육성과 높은 교

육과학성과로써, 학업의 열정으로써 대학의 불후할 존엄과 명예를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실현에 공헌해가고있는 전체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을 따뜻이 축하하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있는 공로있는 졸업생들, 평양시안의 중앙급대학 학생들이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부 성원들, 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류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에 즈음하여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 민족간부육성의 시원을 열어놓은 모체대학이고 조선의 지성과 문명을 대표하는 최고학원의 창립 여든돐은 나라의 큰 긍지이고 경사로 된다고 하시면서 성스러운 교단에서 신성한 본분에 충실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고있는 전체 교원, 연구사들과 조선을 높이 떨쳐갈 포부와 열망을 안고 학업과 탐구에 열중하고있는 학생들, 모교의 창립일에 추억깊은 감회와 따뜻한 마음을 얹고있을 모든 졸업생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80년전 건국의 첫 기슭에 우리 국가의 골간을 이룰 인재육성의 원종장을 먼저 세운 고귀한 리념에 경의를 표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이야말로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그 부강발전을 힘있게 추동하여온 관록있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며 우리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을 당당히 대표하는 최우수인재들을 육성해온 공로있는 명문학원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력사의 초행으로부터 오늘까지 괄목할만한 교육과학성과로써 조국의 백년대계를 믿음직하게 세워온 대학의 긍지스러운 80년연혁에 대하여 회억하시면서 숭고한 애국의 경륜과 계승의 자취가 력력한 대학이 국가주권과 국위도 교육발전과 과학기술주권에 의해 담보되는 시대,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에 있어서 더없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국가건설전략의 훌륭한 성공을 담보해나가는데서 강력한 견인기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하고 번영하는 나라를 일떠세우는 영예로운 투쟁의 전위에는 마땅히 종합대학이 서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대의 엄숙한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맞게 당중앙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로선을 앞장서 관철하며 미래를 향한 든든한 전략적궤도를 부설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교육강국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은 오늘날 우리 당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발전의 3대필수요구이고 기본담보이라고 하시면서 이 전략적과업을 실현하는데서 대학이 차지하는 핵심적이며 주도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한 당중앙의 견해와 기대를 피력하시고 **김일성**종합대학의 높은 질적발전으로써 새시대 사회주의교육의 위대한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의 조국 조선을 위하여, 우리모두의 위대한 리상, 위대한 성공을 위하여 더욱 신심높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축원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과학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실 드팀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천만년 무궁창창할 사회주의조선의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불멸의 교육대강령을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의 열정넘친 연설은 참가자들을 무한히 격동시키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나라의 교육과 과학기술발전에서의 핵심적, 견인기적역할로써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엄숙한 맹세를 열광의 환호로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 기념공연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새시대 교육혁명의 전위에서 줄기찬 비약과 혁신의 힘찬 보폭을 내짚으며 조국의 자랑이 되고 인민의 슬기가 되여주는 조선의 기둥감, 재능있는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보답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교육대강령의 빛나는 실행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대한 **김정은**동지의 축하방문은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우리식 교육강국건설의 명확한 진로와 불멸의 지침을 밝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교육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거창한 새 전기를 펼친 중대한 력사적계기로 된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0월 19일 경공업부문 피복, 신발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당과 정부의 주요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경공업부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의 주제로 열리는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에는 주요경공업공장들과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을 비롯하여 270여개의 피복, 신발, 가방생산단위들에서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파악하여 제작한 30여종에 7만 700여점의 피복제품과 60여종에 17만여컬레의 신발이 출품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복리향상을 추동하며 급속한 진보를 이룩하고 있는 경공업부문의 개화발전상이 응축된 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마다 10월을 맞으며 인민들의 환영속에 열리는 전국적인 경공업전시회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다고 하시면서 전시회가 지난해와 또 다르게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진일보를 가져오며 준비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된 제품들의 형태와 모양, 색갈과 질은 물론 상표와 진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질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경쟁열풍을 고조시켜나가는 경공업부문의 비약적이고도 실속있는 발전면모가 확연히 알린다고, 이번 전시회는 날로 향상되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수준을 웅변해주고 우리 경공업의 발전궤도를 직관해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정책에 의하여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을 비롯한 지방의 경공업공장들에서 출품한 수십종의 맵시있고 질좋은 피복, 신발제품들이 중앙제품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있는데 이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청산하고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발전을 목적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중앙과 지방에 구축되여있고 해마다 확대되는 경공업토대들이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정서적요구와 다채로운 생활을 충족시킬수 있게 경공업의 활기찬 발전추이를 더욱 가속화하여 경공업의 진보가 우리 사회의 고상



하고 아름다운 추세와 문명발전을 선도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부문에서 제품의 도안을 선행시키고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도안축전, 도안전시회를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며 그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적취향을 파악하고 생산에 받아들임으로써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생산의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특색있는 민족옷발전을 적극 장려할데 대한 문제, 우리 국기의 상징적요소들이 조화된 경공업제품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들어 인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애국주의가 사회의 일상생활전반에 깃들게 할데 대한 문제, 새로운 의복, 신발제품들을 년차별로 소개선전하는 각종 화첩, 잡지들을 널리 출판보급할데 대한 문제, 각급 생산단위들이 지역별독점지표들을 가지고 경쟁열풍을 고조시킬데 대한 문제, 학생교복과 가방, 신발생산에서 질을 지속적으로 담보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공업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조직들과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였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의 외손녀 김련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회장 김경수, 부회장 허상숙, 사무국장 방영선, 위원 리설희, 회원 양명실, 양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을 보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8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 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행사진행



조선로동당창건 81 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산하조직들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 돐에 즈음하여 10 월 10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차상보부의장과 길림지구협회일군들이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녀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시지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고자 황백하가족, 길림성송화국제무역유한공사, 주해원세수출입무역유한공사 류홍, 연변북두무역유한공사 박광현, 연변회리공업무역유한공사 우치리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이날 심양주재조선총령사관 총령사동지가 길림육문중학교 간부동지들과 함께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 돐에 즈음하여 9 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 심양시 심연택지부장이 심양주재 조선총령사관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화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로동당창건 81 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본부일군들과 지도원들, 심양시지부 심연택지부장을 비롯한 심양시지부공민들이 총련합회 본부회의실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해설담화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서 최은복의장이 토론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혁명의 첫 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이끌어나갈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부터 인민대중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키워내고 기층조직을 꾸리는 방법으로 시작하여 마침내 1945 년 10 월 10 일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고 높이 칭송하면서 장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을 세련되고 단련된 로숙한 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지지와 신뢰를 받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조직으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확호히 선 혁명적당,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대중적당으로, 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고 격찬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생명으로 하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가장 공고하고 무한대한 견인력을 가진 억척불멸의 혁명적당으로, 일심단결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고 높이 칭송하였다.

끝으로 그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건설과 당활동, 당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며 재중조선공민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기록영화《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80돐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시였다.》를 시청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존엄높고 관록있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80돐을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연설과 어머니조국을 사랑하고 빛내여갈 우리 인민의 지향과 열정을 격조높이 구가한 기념공연을 시청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10월 9일 백경헌 회장을 비롯한 베이징시지부 공민들이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10 월 10 일 료녕지구협회 주계숙회장을 비롯한 재중조선공민들이 단동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당창건 81 돐에 즈음하여 베이징시지부, 상해시지부, 연길시지부, 청도시지부에서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최은복의장동지일행 조국방문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문화국 국장 김연주

최은복의장동지 일행은 9 월 23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조국을 방문하였다.

조국방문기간 형제적인 로씨야련방의 꾸르스크주를 해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서 공화국무력의 전투원들이 피와 목숨으로 쌓아올린 전과와 혁혁한 군공이 기록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참관은 가장 정의로운 위업, 가장 정의로운 국가, 가장 정의로운 인민을 위해 바쳐진 삶은 영생한다는 고귀한 철리를 다시금 되새겨주는 계기였고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참관을 하면서 강대한 우리 국가의 불멸할 존엄과 무궁한 륭성번영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값높은 영광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위대한 **김정은**시대 참전영웅들의 고결한 삶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조국의 별들로 길이길이 빛날것임을 확신하며 해외에 살면서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애국의 길에 본분을 다할 결의들을 숭엄히 다지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 돐에 즈음하여



10 월 25 일 중국인민지원군조선전선참전 76 돐을 맞으며 심양항미원조렬사릉원을 찾아 렬사들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여기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제 1 부의장 리순남동지를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본부일군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김경수회장, 심양시공민들과 중국인민지원군 후손들이 참가하였다.

항미원조렬사기념비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에게!》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니고 제국주의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하며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한 다음 렬사기념비와 렬사묘를 돌아보았다. 푸른 소나무숲속 붉은기결에 고요히 잠들고있는 특급영웅 양근사, 황계광, 일급영웅 구소운, 손점원, 양련제렬사들을 비롯한 영웅들의 묘들을 돌아보면서 참가자들은 숭엄한 분위기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을 영원히 계승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끝으로 동석식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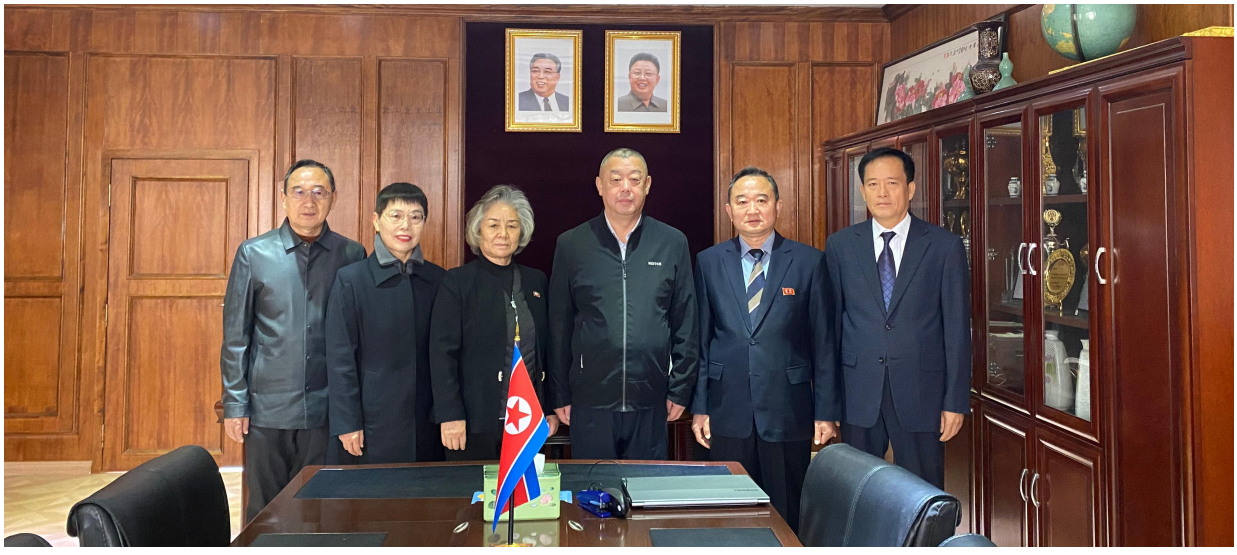
리순남 제 1 부의장은 동석식사발언에서 창건된지 2 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비롯한 15 개추종국가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고 력사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조국수호정신, 그리고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인민과 함께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싸운 중국

인민지원군의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정신, 국제주의정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면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모택동주석을 비롯한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마련되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과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승화발전되고있는 조중친선을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빛내여 나가기 위한 친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활동에 앞서 본부에서 중국인민지원군후손들과의 담화가 있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을 맞으며
본부일군들 참전용사들을 위문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돐을 맞으며 재중총련본부에서 조국해방전쟁로병과 지원군로전사를 위문하였다. 위문방문에 본부 대외사업국 김영희국장과 지도원 최은성, 료녕지구협회 담당 권헌선전국장과 선전국 김연희지도원이 참가하였다.

위문방문에서 일행은 최은복의장동지가 로전사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전하였다. 의장동지는 피로써 평화를 수호하고 승리를 이룩하였을뿐만아니라 력사의 증인이며 더우기 정신의 계승자이라고 하면서 전쟁로병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 안녕한 만년을 보내기를 기원하였다.

김동휘로전사의 가족들은 재중총련에서 지원군로전사들을 잊지 않고 위문한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조선인민군과 지원군전사들은 평화를 수호하고 조중 두 나라의 전통적인 친선에 감동적인 한 페지를 남기였다고 하면서 후손으로서 몸에는 붉은 혈맥이 흐르고있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공적과 조중친선이야기를 잘 전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대대로 전해지게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송병헌로병은 본부일군들이 자주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면서 함께 공민활동을 하던 심양시지부공민들의 안부를 물으면서 본부사업이 잘 되기를 축원하였다.



김동휘로전사와 그의 딸



송병헌로병을 위문

김일성-김정일기금 기부증서를 수여

10 월 22 일 재중총련본부 김연주문화국장과 유관 일군들이 상해시지부 공민들에게 **김일성-김정일**기금기부증서를 수여하였다.



훌륭한 협회와 지부가 되기 위하여

길림지구협회년총화 및 일군강습진행

길림지구협회에서 10 월 16 일부터 17 일까지 매하구시에서 협회년간총화 및 일군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에 길림지구협회담당일군, 회장, 부회장, 사무장 및 각 지부 지부장. 류하현 장만국공민과 박영모선생이 참가하였다.

지순복장춘시지부장은 갑자기 일이 제기되여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경선백산시지부장은 병으로 타지방에 있어 부지부장 조창호선생이 참가하였다.

16 일 저녁 각지부간의 경험교류를 하였다. 경험교류에서는 각지부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토론과 경험들을 나누었다.

17 일 오전 협회년간총화와 일군강습을 진행하였다. 길림지구협회회장은 2026 년사업계획에 따른 총화를 하면서 기본상 계획에 따라 사업들을 전개하였고 특히 류하현 지부장문제로 김청수부회장과 장만국선생이 류하현에 내려가 원 최관봉지부장에 대한 소식을 확인하였으며 추천한 류화현 공민 장만국선생을 류하현지부련계인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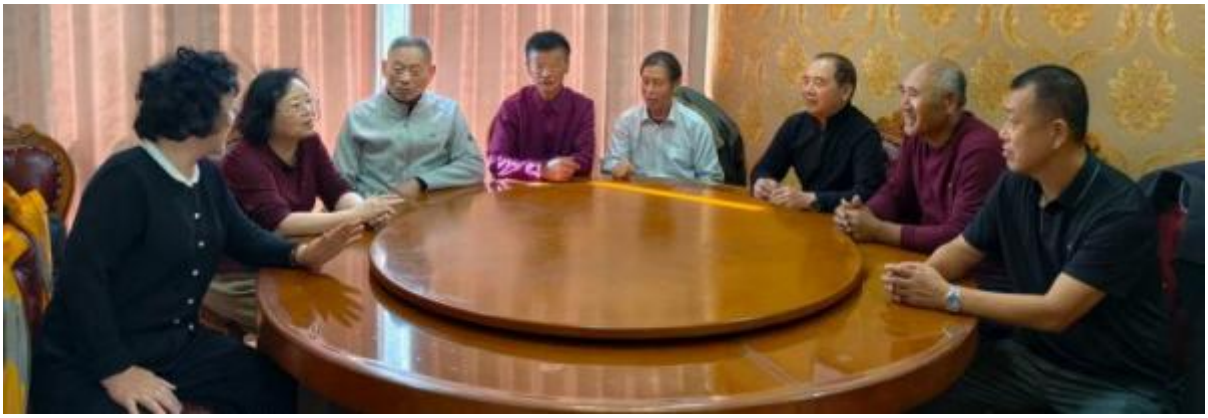
또한 각지부에서 월총화 및 계획을 착실히 하여 총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고 다음달 계획을 실질적으로 작성할것을 강조하였다. 뿐만아니라 각지부의 공민수가 줄어들고 년세가 많아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에 앞으로도 금년처럼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부와 공동으로 활동을 추진하고 장백현지부를 따라배워 자체로 활동실을 꾸려 공민들이 자기의 지부활동장소가 있도록 각 지부에서 노력해줄것을 희망하였다. 총화에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위대한 수령님동상을 모신것은 협회의 자랑이라고 하면서 모범협회, 모범지부로 되기 위해 우리 모두 일심단결로 사업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총화에서는 2026 년 9 월에 새로 등록한 공민명단에 따라 각지부에서 확인, 점검할것을 포치하였다. 계속하여 일군들에 대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강습은 조직강화, 선전, 대외사업. 일군사업등 네가지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총화 및 강습참가자들은 현단계 3 대주력사업인 공민권익옹호, 새세대육성, 민족성고수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찾아 실천에 옮기며 공민들을 위하여 뛰는 일군이 되자고 마음들을 합치였다.

모임이 끝난후 매하구시 유람지를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庆祝朝鲜劳动党建党 81 周年

중남지구협회 부회장 박성길

今年的 10 月 10 日，是伟大的朝鲜劳动党建党 81 周年的生日。为了迎接全体朝鲜人民心中亲爱的母亲党的生日，我们旅居中国上海的海外公民相聚，喜庆朝鲜劳动党建党 81 周年生日。 1945 年的 10 月 10 日，伟大领袖**金日成**同志亲手创建了朝鲜劳动党。81 年来，伟大的朝鲜劳动党始终以正确的方针政策引领我国千万朝鲜人民走在百战百胜的道路上，克服了一个又一个艰难险阻，始终迎着辉煌的未来奋勇前进。

我国人民在母亲党----朝鲜劳动党无限温暖的怀抱里，一直以信心十足的状态，战天斗地、奋发图强、迎难而上、勇往直前。

如今，生活在这片疆土上的每一个朝鲜人民，都能享受生活的幸福和行使光荣的权利，这是因为我们生活在母亲党无比温暖的怀抱里。

由于有伟大的朝鲜劳动党领导全体朝鲜人民，我们的人生和幸福才能得到坚定保证。我们要永远无限忠诚地拥护和爱戴朝鲜劳动党的领导。

伟大领袖**金日成**同志在抗日斗争中创立了永生不灭的主体思想，在抗日烈火中稳固筑牢建党的组织思想基础，祖国解放后逐步成就了建党历史事业。

伟大领导者**金正日**同志把我们党进一步加强和发展成为确立领袖的思想体系。进一步提高和加强了领导思想体系的高度的纯洁性、组织的整体性、行动的统一性，与人民群众的需求浑然一体、成就为一个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母亲党。

如今，在竭诚拥戴敬爱的**金正恩**同志领导下，我们党作为坚定继承建党理念和百战百胜历史的战无不胜的革命政党，成为一个真正的享有尊严、威震寰宇的革命政党。

在 10 月 10 日母亲党的生日，我们生活在中国上海的海外公民，要与全体朝鲜人民一起振臂高呼：伟大的母亲----朝鲜劳动党万岁！

반향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81돐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청년협회회원 김영미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속에 지난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당창건 80돐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여 영광의 순간순간들로 가슴벅찼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1년이 되였습니다. 변함없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전면적륭성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조국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물론 해외공민 우리들도 조국멀리 이역에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오늘도 향도의 우리당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창건절을 전인민적대경사로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80여성상 전설적인 승리와 기적적인 사변들을 아로새기며 사회주의위업의 가장 정확한 길로 승승장구해온, 이 세상 가장 존엄높은 최장의 사회주의집권당 위대한 조선로동당은 우리들의 행복의 요람, 언제나 승리에로 인도하는 삶의 등대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해 당창건 80돐행사에서 우리 당의 80년력사는 인민의 력사로서만 가장 정확히 대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여 개척하고 승리에로 빛내여 온 위대한 80년에 이어 보다 영광스럽고 긍지높은 위대한 력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실현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도 드높이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슴뜨겁게 울려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마음속깊이 새기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자랑스런 우리 조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잘 받들어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나가며, 자주의 존엄으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따라 사회주의 한길로 변함없이 꿋꿋이 나가는 우리 조국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애국의 한길만을 힘차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조선로동당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계획의 첫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기적들이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로동당의 81돐 생일을 맞으며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삼가 안녕을 축원합니다.

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을 참관하고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사무국장 방영선



왼쪽으로부터 두번째 방영선사무국장

나는 오늘 참전렬사들의 애국충성의 넋이 살아숨쉬는 해외군사작전전투위훈기념관을 참관하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수호하는 싸움에서 강대한 불멸의 공적을 세운 우리조국의 참전영웅용사들의 무비의 용맹. 영웅투쟁장면들을 깊은 감동속에 보았습니다.

조국의 엄숙한 명령앞에, 무거운 사명을 걸머쥐고 사랑하는 부모처자의 바래움도 환송의식도 없이 차디찬 이역만리 전장에서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사랑하는 내 조국의 장한 영웅들의 위훈에 찬 투쟁모습이 내 눈에 어려오고 최후의 시간에 남기고 간 생의 메아리가 뜨겁게 울려오는듯 합니다.

어머니조국앞에 떳떳하기 위하여 둘도없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친 참전렬사들,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는 결사전에 나설때마다 위대한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정중히 우러르며 수령흠모의 노래를 목메여 부른 참전렬사들의 정신세계는 참으로 귀중한것이였습니다.

조국과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의 전장에서 어떻게 신념을 지키고 적들을 전률시키였으며 세계앞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상을 올려세웠는가를, 그것은 바로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이였고 사랑이였으며 그 믿음과 사랑의 피줄을 한몸에 받아안은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 배반은 죽음이라는 애국의 마음이였습니다.

우리가 포근한 잠자리에서 잠들고 평온한 생활과 행복을 누리고있을때 그 누군가는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도, 미래도 뒤로 하고 조국앞에 피와 생명을 바쳐 싸우는 이름없는 혁명영웅들이 있었으니 비록 그들의 생은 짧았지만 세계의 평화와 조국을 위하여 어떤 생을 살아야 하며 조국앞에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정: 《청송》 9월호잡지 11p에 《조선로동당창건 81돐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8돐에》로 정정한다.

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펼쳐준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경의와 신뢰의 정이 영광의 １０월과 더불어 온 나라 강산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조선로동당창건 ８１돐경축 청년학생들의 야회가 １０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야회장소는 향도의 당을 따라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진군길에서 우리 당의 창건일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춘들의 기쁨과 랑만으로 설레이였다. 노래 《어머니생일》이 울려퍼지며 야회가 시작되였다.

청년학생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의 강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며 《당이여 그대 있기에》, 《로동당의 정책은 좋다》 등의 노래에 맞추어 경축의 춤바다를 펼치였다.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야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품에 안아 성장의 걸음걸음을 따뜻이 보살피며 열혈의 혁명가, 창조의 주인공들로 키워주는 당의 품속에서 애국청년의 고귀한 명함을 끝없이 빛내여가는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인민의 모든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어머니조국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긍지를 안고 청년학생들은 흥겨운 노래들에 맞추어 아름다운 춤률동을 이어갔다.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사회주의대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을 분출시키며 기념비적송가 《친근한 어버이》가 수도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속에 야

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청춘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조국을 빛내여갈 새세대들의 강렬한 지향을 반영한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청춘송가》의 노래를 합창하며 경쾌하고 박력있게 원무를 펼쳐가는 청년학생들의 모습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리라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수도의 하늘가에 황홀하고 눈부신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솟구쳐오르며 명절의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었다.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며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갈 열혈청춘들의 철석의 맹세를 담아 싣고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조국이여 번영하라》의 노래선률이 야회장에 힘차게 울려퍼졌다.

청년학생들의 야회는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국가부흥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서의 고귀한 명예를 높이 떨쳐갈 새세대들의 혁명적열정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이 안아온 풍작의 기쁨



황금물결 설레이는 사회주의전야마다에서 가을걷이가 한창이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에서도, 서해곡창 열두삼천리벌에서도, 동부지구의 함주군에서도 흐뭇한 작황을 마련한 자랑속에 누구나 성수가 나서 일손을 다그치고있다. 땅이 꺼지게 벼이삭이 실린 포전에서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농기계들을 흥겹게 몰아가는 운전공들, 아름이 벌게 벼단을 안아들고 풍요한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농업근로자들… 이들모두가 한목소리로 터치는 격정이 있다. 올해의 풍만한 결실은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로고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희한한 새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서고 과학농사, 기계농사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였기에 오늘날 이렇게 드넓은 전야마다에 풍작이 펼쳐진것이 아니겠는가. 온 한해 알곡증산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자랑찬 결실을 마련한 농업근로자들의 가슴가슴은 지금 우리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갈 결심과 의지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평양제2사범대학 준공식 진행



우리의 교육을 국가와 인민의 미래를 마음놓고 맡길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려는 위대한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시대 교육혁명이 전국적범위에서 확대심화되는 속에 평양제2사범대학이 새로 건설되였다.

평양시에서 8만 6 000여㎡의 부지면적에 새 교사와 실천교육관, 전자도서관, 체육관 등이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꾸려지고 선진적인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사범대학을 훌륭히 일떠세움으로써 수도의 중등교육부문의 교원후비들을 원만히 육성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교육자, 학생들에게 충분한 사업조건과 학습조건을 제공해주게 될 평양제2사범대학의 준공은 창조와 변혁의 진폭이 커갈수록, 부과된 혁명과제가 거창할수록 교육사업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최중대사로 내세우고 최대의 공력을 기울이는 우리당 교육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평양제2사범대학 준공식이 2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시안의 당, 정권기관, 관계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 건설자들,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에 앞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이어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새 교정의 주인들이 준공테프를 끊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대학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전국피복, 신발전시회-２０２６》 련일 성황리에 진행

해마다 １０월을 맞으며 인민들의 환영속에 진행되는 전국적인 경공업전시회는 올해에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그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지난해와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있는 《전국피복, 신발전시회-２０２６》은 우리 사회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추세와 문명발전을 선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경공업성, 지방공업성, 봉화무역국 등 성, 중앙기관들과 평양시, 각 도의 피복공장, 신발공장, 가방공장, 양복점들을 비롯한 ２７０여개의 단위들이 참가하여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기호와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제작한 각양각색의 계절옷들과 신발, 가방, 모자, 천그리고 각종 기호품들을 출품하였다.

전시회장의 １층에는 후대들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당의 고마운 시책속에 아이들이 받아안는 학생교복과 신발, 가방들 그리고 원아들이 입는 운동복 등을 전시한 구역이 있다. 또한 전시회참가단위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따로 전시한 구역도 있다. 지난 시기 진행된 여러 전시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원산구두공장, 류원신발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 우리당 지방발전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새로 일떠선 각지의 시, 군옷공장들의 전시구역은 전시회장을 더욱 흥성이게 하고있다.

２층의 전시회장에는 각종 신발제품들이 출품되였고 지방의 피복생산단위, 천생산단위들의 전시구역도 있다.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열풍》의 주제로 열린 전시회는 제품들에 대한 진렬형식부터 이채롭고 다양한 옷, 신발도안들도 전시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이번 전시회는 참관자들로 하여금 우리 경공업의 활기찬 발전상을 직관하게 하고있다. 전시된 갖가지 제품들을 통해 사람들 누구나 더 밝고 문명해질 우리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매봉산》상표와 더불어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원산구두공장의 전시대가 매우 흥성이고있다. 평양구두공장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날개》상표의 새 제품들을 많이 출품하였다.

질적측면에서나 가지수와 모양새에 있어서 뚜렷한 비약을 이룩한 제품들에 대한 호평은 피복제품전시대들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은하무역국과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는 계절옷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이전에 비해 색갈과 형태에 있어서 더 우아하고 다종다양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형태와 가공기술이 보다 세련된 가죽제품들도 많이 출품되였다.

《철쭉》양말들과 갖가지 가방들을 전시한 전시대들을 보면서 참관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볼수 없었던 새로운 부류, 새로운 종류의 제품들이 정말 많이 출품되였다고 감탄을 터치고있다.

《지방발전 ２０×１０ 정책》의 성과적실행과 더불어 각지에 새로 일떠선 시, 군옷공장들도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였다. 그 전시대앞에서 사람들은 정말 지방제품이 옳긴 옳은가고 하며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성천군옷공장에서는 군의 특산인 명주를 리용하여 만든 비단잠옷과 내의류를 비롯하여 수십종의 피복제품들을 전시하였다. 준공한지 １년도 안되는 장연군옷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인민들의

호평이 울려나오고있었다. 련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전국피복, 신발전시회-2026》은 어머니당의 손길아래 이룩된 우리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상을 힘있게 과시하며 수많은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있다.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２０２６》
우리 선수들 ２６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４１개의 메달 쟁취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２０２６》이 지난 ９월 ２７일부터 １０월 ２일까지 까자흐스딴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로씨야, 따쥐끼스딴을 비롯한 ２４개의 나라와 지역의 ８９０여명의 선수, 감독 등이 참가한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태권도선수들은 ２６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４１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선수들은 성인부류 남, 녀단체틀경기, 청년부류 남자단체틀경기, 성인부류 녀자단체맞서기경기에서 각각 １위를 하였다.

성인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김일혁선수가, 녀자개인틀경기에서 류경, 김지홍, 박념원선수들이, 청년부류 남자개인틀경기에서 김평일, 동충무, 윤장원선수들이 우승하였다.

성인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김위성, 류성국, 김일혁, 김주일선수들이, 녀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류경, 박설미, 한소연, 김류경, 민혜경, 박념원, 강철옥선수들이, 청년부류 남자개인맞서기경기에서 김평일, 문남훈, 황의성, 김정웅선수들이 １위를 쟁취하였다.

《세계컵태권도경기대회-２０２６》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태권도선수들을 ６일 평양역에서 내각사무장 김금철동지, 관계부문, 조선태권도위원회 일군, 체육인, 가족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체육인들이 선수, 감독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새로 건설된 불고기전문식당들 준공

평안남도 평성시, 함경남도 함경시를 비롯한 여러지역에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과 음식문화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불고기전문식당들이 새로 일떠섰다. 고전미와 현대미

를 결합하여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건설된 식당들에는 각종 불고기와 랭면, 청량음료를 봉사할수 있는 실내봉사실들과 야외봉사구역 등이 꾸려져있으며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할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있다.





많은 꿩과 노루를 놓아주었다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에서는 해마다 애써 키운 많은 꿩과 노루를 놓아주어 산과 들의 풍치를 돋구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얼마전 도에서는 또다시 수천마리의 꿩과 수백마리의 노루를 도안의 산들에 놓아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시, 군들에서 산림조성에 큰 힘을 넣어 유용동물들이 보금자리를 펼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을 계획성있게 내밀도록 하였다. 보여주기와 기술전습 등을 통해 시, 군들에서 유용동물을 증식시키기 위한 토대를 알심있게 다지고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꿩과 노루의 마리수를 늘여나가도록 하였다. 서흥군과 린산군에서는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는 한편 관리공들의 생활조건보장 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많은 꿩과 노루를 길러내도록 떠밀어주었다. 연탄군과 연산군에서는 유용동물서식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먹이보장과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유용동물의 마리수를 부쩍 늘이였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여러가지 먹이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생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면서 알낳이, 새끼낳이률을 훨씬 높여 많은 꿩과 노루를 길러냈다. 하여 올해에도 정성다해 기른 수많은 꿩과 노루들을 푸른 숲 우거진 산들에 놓아주는 이채로운 풍경이 또다시 펼쳐졌다.

국제축구련맹 ２０２６년 ２０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소식

국제축구련맹 ２０２６년 ２０살미만 녀자월드컵경기대회가 결속되였다.

２７일(현지시간)에 진행된 우리 나라 팀과 에스빠냐팀사이의 결승경기는 ３:４(전후반전 ０:０, 연장전 ０:０, １１ｍ승부차기 ３:４)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축구팀은 ２위를 하고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１위는 에스빠냐팀이, ３위는 꼴롬비아팀이 하였다.

신계군에서 새집들이경사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함에 진정을 다하는 어머니당의 위대한 사랑에 받들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가운데 황해북도의 신계군에도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읍지구와 왕당리, 마석리에 중산간지대의 특색과 현대미를 잘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조건이 그쯘히 갖추어진 수백세대의 살림집과 상업봉사망들이 일떠서 당창건 ８１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이곳 인민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더해주고있다. 살림집입사모임들이 ９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창호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김동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건설자들, 신계군안의 근로자들,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들에서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오늘의 새집들이경사는 마음속 가장 첫자리에 인민을 소중히 품어안으시고 열과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 주민들이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고향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새집에 들어선 근로자들은 다심한 어버이사랑이 넘쳐흐르는 집안의 곳곳을 돌아보며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사이프 천우컵》 민족식 씨름대회 연길해란강민속원에서

10월의 첫날, 흰구름이 도시상공을 감도는 부르하통하 강반의 연길의 하늘은 유난히 아름다웠다. 연길조선족민속원 씨름경기장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건국 77주년을 맞아 열린 2026년 연변주 《사이프 천우컵》 민족식씨름대회—그 현장은 경기를 보러 온 관중들로 북적였고 모래판 우에는 설렘과 긴장이 함께 흘렀다.

이번 대회는 연길성주청소년체육클럽이 주최하고 길림천우그룹 사이프천우생물과학기술(연변)유한회사에서 협찬했다. 연변 8개 현시를 대표하는 성인 선수들과 중소학교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여섯살 어린이부터 스물다섯살 청년까지 남녀 선수들이 17개 체급으로 나뉘여 기량을 겨루었다. 다섯살 아이의 작은 어깨와 스물다섯 청년의 든든한 등이 같은 모래판에 서는 모습은 그 자체로 뭉클한 풍경이였다.

경기장에 울려퍼지는 함성 속에서 모래판 우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남겼다.

소학교 남자부 -30kg 결승에서는 훈춘의 최정빈과 기운호가 맞붙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진지했다. 관중석에서는 관중들이 손에 땀을 쥐고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정빈이 상대의 허리를 감아 돌려 모래판에 메치는 순간, 해살에 비친 모래먼지가 금빛으로 흩날렸다. 이어 -35kg 전광철, -40kg 리지성, -45kg 경지강, -50kg 김지훈, +50kg 김승현이 각각 1위에 올랐다. 훈춘과 룡정, 연길, 화룡을 대표하는 선수들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관중석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소학교 녀자부 -40kg에서는 안도현의 최민정이, -50kg에서는 기가은이 정상에 섰다. 안도에서 온 두 소녀는 시상대 위에서 서로를 꼭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지며보며 어른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중학교 녀자부 -50kg 신지원, -62kg 박수지, +62kg 리한나. 중학교 남자부 -62kg 전현근, -74kg 박준호, +74kg 김하진. 이름 하나하나가 모래판 위에서 또렷하게 빛났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시 맞잡는 그 과정 속에는 상대를 넘어뜨리면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성인부 -74kg에서는 연길시의 리지훈이, -87kg에서는 리지성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날 가장 많은 시선이 쏠린 경기는 단연 87kg급이였다. 룡정시의 박성환, 연길시의 방유성, 두 선수의 맞대결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였다.

결승에서 박성환은 방유성을 상대로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이며 우승을 거머쥐였고 방유성은 준우승, 김덕운은 3위에 올랐다. 모래판에 무릎을 꿇고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던 박성환의 등에는 땀과 모래가 뒤섞여 흘렀다. 그 등에는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고스란히 배여있었다.

길림천우그룹 전규상 회장이 87킬로그램급 이상 우승자 박성환(왼쪽) 선수에게 황소고삐를 넘기고 있다.

씨름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의 기억이고 세대를 잇는 끈이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의 지혜로 길이 전해지고 있다.

정오의 태양이 내리쬐는 연길해란강민속원 씨름경기장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모래판우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았고 그 발자국마다 넘어진 자의 아쉬움과 일어선 자의 기쁨 그리고 이를 지켜본 관중의 감동이 차분히 깔려 있었다. 부르하통하의 물결이 그날의 함성을 싣고 흐르듯이 모래판우에 새겨진 이야기들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다.



연변주 총인구 공포! 남녀 비률은→

최근 길림성통계국은 《연변조선족자치주 2025 년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통계공보》를 발표했다. 공보에 따르면 2025 년 말에 이르기까지 호적 총인구는 194 만 8000 명으로 전년 말보다 3 만 1800 명 줄었다.

이중 도시인구는 135 만 9400 명으로 총인구의 69.8%를 차지하며 전년 말 수준과 동일하다.

2025 년 출생인구는 5736 명, 출생률은 2.92‰이며 사망인구는 3 만 1651 명, 사망률은 16.12‰, 자연증가률은 -13.20‰이다. 년말 총인구 중 한족은 117 만 6000 명으로 60.4%를 차지하고 조선족은 68 만 7400 명으로 35.3%를 차지한다. 만족은 7 만 2400 명으로 3.7%, 기타 민족은 1 만 2200 명으로 0.6%를 차지한다.

2025 년 말까지 상주인구는 187 만 3300 명으로 전년 말보다 1 만 2900 명 감소했다. 그중 남성은 92.77 만명으로 약 49.52%, 녀성은 94.56 만명으로 약 50.48%를 차지했다. 도시인구는 149 만 9300 명, 0 세-15 세는 18 만 6700 명, 16 세-59 세는 104 만 4700 명, 60 세 이상은 64 만 1900 명이다.

조선족 농악무와 음식 본계시 10대 민속문화에 입선



일전 국경절 황금련휴를 맞아 본계시문화관광국이 본계시 2026년 10대 민속문화 명록을 사회에 공시했다.

환인만족자치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조선족농악무 《걸립무》와 시급 무형문화유산 환인조선족음식이 입선되였다.

환인지역에서 100여년 전승되여온 조선족농악무 《걸립무》는 2006년에 제1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록에 등재됐다.

김명환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중화 무형문화유산 전승인 신전상(薪传奖)을, 김화는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전승인 영예를 획득했다.

최근년간 공연팀은 국가·성·시·현급의 각종 시합과 공연에 참가해 수많은 영예를 따냈다.

특히 국경절 련휴기간마다 세계문화유산지인 오녀산풍경구에서 공연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환인조선족음식은 2016년에 본계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고 아하조선족향 아하촌은 제작기예 전습기지로 지정되였다.

최근년간 환인현에서는 지역 민족특색 음식문화를 전승하는 동시에 조선족 민속음식업의 혁신과 발전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문화, 품질, 력사, 특색을 갖추고 조선족 농악무 《걸립무》. 보급면이 넓은 지방 특색음식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번 공시에서 추천한 환인조선족음식 특색미식으로는 김치만두, 불고기, 삼계탕, 추어탕, 느릅국수 등이 있다.

/료녕신문



중국로농홍군장정승리 ９０돐 기념대회 베이징에서 진행

중국로농홍군장정승리 ９０돐 기념대회가 ２２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습근평주석이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각계층 대표들과 함께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의 시작이 선포되자 전체 참가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합창하였으며 장정과정과 각지에서의 혁명투쟁과정에 영용하게 희생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습근평주석이 중요연설을 하였다.

그는 장정승리후 지난 ９０년동안 중국공산당이 인민을 묶어세우고 이끌면서 혁명과 건설의 력사적시기마다 위대한 장정들을 거듭 진행하고 승리를 거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력사를 기억해야 미래를 개척할수 있다고 하면서 전당, 전군,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이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위대한 장정정신을 적극 발양하며 혁명선배들이 개척한 위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키고 새로운 장정의 길에서 휘황한 력사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당, 전군,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첫번째 백년투쟁목표가 달성되였으며 지금 새로운 려정에서 사회주의현대화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두번째 백년투쟁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려정은 영광과 꿈으로 충만된 원정이며 당과 인민의 새로운 장정이라고 하면서 당의 리상과 신념, 근본목적을 견지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초심과 사명을 명심하고 인민에게 철저히 의거하여 새로운 력사적 위업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노래 《인터나쇼날》의 주악으로 끝났다. /인민넷-조문판

중국인민은행, 인민폐 환률 관련 정책립장 발표

10월 8일, 중국인민은행은 인민폐 환률에 관한 정책립장을 발표하며 중국은 시장수요와 공급을 기반으로 하고 바스켓통화를 참고해 조정하는 관리적 변동환률제도를 시행하는바 환률형성과정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인민폐 환률은 량방향 변동을 보였다. 2010년 이후 인민폐 환률은 여러차례의 상승과 평가절상 국면을 겪었으며 량방향 변동의 특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탄력성도 강화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무역발전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은 환률 평가절하를 통해 무역 경쟁우위를 확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의향도 없으며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는 결코 추진하지 않는다. 환률은 경제성장, 통화정책, 금융시장, 지정학, 돌발적 위험사건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경상수지와 단순한 선형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현재 전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광범위한 토론을 유발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전세계 경제의 불균형이 글로벌 분업구도의 진화, 국제통화체제 고유의 모순, 일부 국가의 장기적인 높은 재정적자와 높은 소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여있으므로 각국이 함께 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국의 산업경쟁력 저하, 재정 및 경제적 제약 완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타국 환률탓으로 돌리는 것은 자국의 조정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는 행위이다. 장기적인 발전을 거치며 학술연구에서 다양한 균형환률평가 모델이 파생되였다. 중국인민은행은 국제적으로 환률균형수준에 관한 평가방법이 전반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며 개별평가결론을 인민폐 환률 저평가의 《공식근거》로 삼는 것은 평가결과를 왜곡하거나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다차례 동적 균형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으며 《15.5》기간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며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고 고수준의 대외개방을 심화하여 글로벌 경제가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균형잡힌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넷-조문판

최신! 2025년 전국 출생인구 792만명

국가통계국이 편찬·출판한 《중국통계년감 2026》이 2025년 31개 성급 행정구의 인구 출생률, 사망률, 자연증가률 데터를 공개했다.

2025년 한해 전국 출생인구는 792만명에 달했고 출생률은 5.63‰, 자연증가률은 -2.41‰에 달했다. 2025년에 출생률이 7‰을 초과한 성급 행정구는 9개였다. 인구 자연증가률 면에서는 7개 성급 행정구의 인구 자연증가률이 플러스였다.

그중 출생률이 7‰을 초과한 9개 성급 행정구는 각각 서장, 귀주, 신강, 녕하, 청해, 광동, 해남, 운남, 광서이며 주로 서부지역과 화남지역에 위치해있다.

출생률이 비교적 높은 곳은 흔히 도시화률이 비교적 낮은 곳이다. 다만 례외도 있는데 그중 제1경제대성 광동은 도시화률이 전국 4위의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2025년 광동성 출생 인구는 100.3만명으로 전 성 출생 인구가 전국 출생 인구의 약 12.7%를 차지했다. 전국 신생아 8명중 1명이 광동에서 태여난 셈이다. 광동은 이미 6년 련속 전국에서 유일한 출생 인구 100만명 초과 성급 행정구가 되였고 8년 련속 출생아가 가장 많은 성급 행정구가 되였다.

인구 자연증가률로 보면 총 7개 성급행정구가 2025년 인구자연증가륙 플러스를 기록했는바 역시 주로 서부지역과 화남지역에 위치해있으며 각각 서장, 신강, 광동, 녕하, 귀주, 해남, 청해이다. 2025년 한해 전국 혼인등록은 676.51만쌍에 달한다. /인민넷-조문판

6개 수자로 읽는 홍군 장정!

장정의 력사를 기억하고 위대한 장정정신을 계승하자.

1934년 10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중국공산당은 중국공농홍군을 이끌고 비범한 지혜와 불굴의 영웅기개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희생을 치른 끝에 세계를 놀라게 하고 력사에 길이 빛날 장정을 완성했다.

6개의 수자를 통해 이번 위대한 원정을 느껴보자.

★ 2년

1934년 10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홍군은 2년의 시간을 들여 장정을 완성했다.

홍1방면군 1934년 10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홍2방면군 1935년 11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홍4방면군 1935년 3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홍25군 1934년 11월부터 1935년 9월까지.

★ 6.5만 킬로메터

홍1방면군 2.5만킬로메터. 홍2방면군 2만여킬로메터. 홍4방면군 1만여킬로메터. 홍25방면군 근1만킬로메터. 전체 총 6.5여만킬로메터

★ 30여차례 중요 회의

중공중앙이 장정도중에 소집한 회의중 기록을 남긴 회의가 30여차례가 넘는다.

그중 준의회의는 중국공산당 력사에서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당을 구하고 홍군을 구했으며 중국혁명을 구했다.

★ 40여개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

홍군 장정기간 장병들은 거의 100개에 가까운 강과 40여개의 높은 산봉우리를 넘었으며 그중 해발 4000메터 이상의 설산이 20여개에 달한다. 많은 홍군전사들이 지쳐쓰러지고 얼어붙은 설산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 600여차례 전역 전투

각지의 홍군은 적과 600여차례의 전역과 전투를 벌였으며 그중 사단 이상 규모의 전투는 120여차례에 달했다.

★ 6차례 합류

목황합류

1934년 10월 24일, 홍6군단과 홍3군은 귀주 인강현 목황에서 합류했다.

모공합류

1935년 6월, 중앙홍군 선두부대와 홍사방면군 일부가 달위진에서 합류했고 중앙홍군 주력이 사천 모공(현재의 소금) 지역에 도착했다.

영평합류

1935년 9월 16일, 홍25군과 섬감홍군이 섬서 연천 영평진(현재 영평진)에서 합류했다.

감천합류

1935년 11월초, 섬감지대와 홍15군단이 섬서 감천지역에서 합류했다.

감자합류

1936년 7월초, 홍2군단, 홍6군단과 홍4방면군이 감자에서 합류했다.

회녕, 장대보합류

1936년 10월, 홍4군과 홍2방면군이 각각 감숙 회녕과 감숙 룡덕 장대보(현재 녕하 서길)에서 홍1방면군과 합류하며 중국공농홍군 장정이 승리적으로 끝났음을 알렸다.

/인민넷-조문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 진행



조중 두 나라사이의 쌍무교류와 협조를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설계되고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속에 조중압록강다리가 완공되였다.

두 나라 지경을 감돌아흐르는 압록강우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국경다리는 력사의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꿋꿋이 지켜온 조중친선의 불패의 생명력과 발전상이 응축된 창조물이다. 각종 운수수단들의 안전통행과 인원래왕을 보장할수 있는 압록강다리가 일떠서고 려행자검사장, 수출입품검사검역소 등이 실용적으로, 현대적으로 꾸려짐으로써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련계를 보다 강화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중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식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동지, 평안북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정혁동지,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룡남동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 마종수동지, 관계부문, 평안북도와 신의주시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이 개통식에 참가하였다.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허곤림동지, 료녕성인민정부 부성장 백영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 중국 외교부, 료녕성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해당 부문 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리강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태성동지의 화상축하발언이 있었다.

리강동지는 중국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습근평총서기동지와 **김정은**총비서동지께서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중조압록강다리의 개통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을 고도로 중시하는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한 립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총비서동지가 령도하는 조선사회주의위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변하지 않을것이며 중조쌍방의 공동의 리익과 전략적환경을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은 변하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그는 조선측과 함께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철저히 관철리행하며 정치적호상신뢰를 두터이 하고 실무적협조를 확대함으로써 중조관계의 심화발전과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박태성동지는 조중압록강다리의 개통식은 두 나라의 지맥을 자연지리적으로 새롭게 련결해줄뿐 아니라 장구한 기간 생사고락을 같이한 량국인민들의 친선의 뉴대를 굳건히 이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공동의 리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맞게 새로운 전략적높이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조중압록강다리가 두 나라의 부흥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전진의 보무를 가속화하고 호혜적인 경제협조에 새로운 력동을 더해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리개통을 축하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동지와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허곤림동지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중압록강다리의 개통을 위해 아낌없는 땀과 노력, 지혜를 고여온 두 나라의 련관부문 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사의를 표하였다.

조중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이라는 력사적사변들을 아로새긴 １０월에 진행되는 압록강다리의 개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발전하고있는 조중친선협조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중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해 쌍무교류와 협조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두 나라의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영원하기를 축원하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동지, 중화인민공화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리룡남동지,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 마종수동지와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 허곤림동지,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왕아군동지, 료녕성당위원회 선전부장 조승동지가 개통테프를 끊었다.

쌍방의 차행렬들이 다리를 통과한 다음 조중압록강다리 개통이 선포되였다.



황해북도 신평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 준공식 진행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76 돐에 즈음하여 황해북도 신평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가 렬사릉원으로 개건되였다.

렬사릉원 준공식이 24 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렬사릉원에 정렬해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성 부상 강철호동지, 관계부문, 황해북도와 신평군안의 일군들, 건설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기함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림시대리대사, 대사관 성원들,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홍종명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 체류중 중국손님들, 화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참가자들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며 조선인민의 진정한 전우들인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렬사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시경영성, 황해북도인민위원회, 신평군인민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중국퇴역군인사업부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준공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강철호부상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높이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중국인민지원군의 빛나는 위훈과 숭고한 넋, 고결한 희생정신은 조중친선과 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라고 말하였다.

기함 림시대리대사와 홍종명단장은 렬사릉원이 훌륭히 꾸려진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위대한 항미원조정신은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것이며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렬사릉원을 돌아보았다. (끝)

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 여러곳 참관

홍종명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퇴역군인사업부대표단이 ２４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여러 관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은 또한 성흥혁명사적지를 참관하였으며 평양시 강동군,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아 성묘하였다.

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의 영웅적위훈

조중친선의 력사에는 우리 인민과 한전호에서 어깨겯고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영웅적위훈이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７６년전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조선전쟁에 용약 참전하였다.

１９５０년 ６월 미제가 청소한 우리 국가를 반대하여 도발한 조선전쟁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미증유의 싸움이였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추종국가군대를 포함한 ２００여만의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를 조선전선에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우리 인민앞에 엄혹한 시련이 들이닥치였던 준엄한 시기 중국의 당과 정부, 인민은 《항일원화》, 《항장원화》의 기치밑에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준 조선혁명가들에 대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켜 건국초기의 극히 곤난한 형편에서도 자기의 귀중한 아들딸들로 지원군을 무어 조선전선에 파견하였다. 기세도 드높이 압록강을 건너온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은 １９５０년 １０월 ２５일 무비의 용맹을 발휘하여 운산지구전투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날은 중국인민지원군의 조선전선참전일로 력사에 기록되였다.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조선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애호하며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와 일치단결하여 미제국주의침략군대를 철저히 소멸할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 불같은 맹약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가렬처절한 결전장들마다에서 불굴의 의지와 기개를 남김없이 떨쳐 원쑤들을 전률케 하고 불멸할 공훈을 세웠다. 그들은 총포탄이 우박치듯 하는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용감히 돌진하여 침략자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조선의 고지들을 피로써 지켜냈다.

１９５０년 １１월 １０７１고지방어전투에서 양근사영웅은 총탄과 수류탄이 떨어지고 고지에 홀로 남게 되자 《이 원쑤놈들아, 올라올테면 올라오라. 고지에는 항미원조보가위국의 전사, 중국공산당원 혼자만이 남아있다. 공산당원이 고지를 지켜서있는한 네놈들은 고지를 빼앗지 못한다!》라고 웨치며 불달린 폭약을 안고 적진속에 서슴없이 몸을 날렸다.

그뿐이 아니다. 오늘도 상감령은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발휘한 영웅적희생성이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길이 전하고있다.

１９５２년 １０월 미제는 모험적인 공세를 기도하면서 상감령일대에 많은 병력과 전투기재들을 투입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상감령은 불바다로 변했지만 지원군용사들의 영웅적희생정신은 꺾을수 없었다. 중국인민지원군 소대장이였던 손점원영웅은 수류탄묶음을 안은채 적진에 뛰여들어 장렬한 최후를 마치였다. 다른 고지에서는



구분대통신원이였던 황계광용사가 《사랑하는 조선, 그것이 어찌 내 고향, 내 조국과 다르랴! 적탄은 비록 나의 생명을 빼앗아도 사랑하는 조선의 형제들은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조선을 지키는 길이자 나의 조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숭고한 자각을 안고있었기에 교암산의 영웅으로 불리우는 리가발용사도 원쑤의 불구멍을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었고 허가붕영웅도 자기의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조중인민의 공동의 원쑤 미제를 쳐부시는 전화의 나날에 중국인민의 훌륭한 아들딸들이 청천강과 ３９１고지, 장진호반을 비롯한 이 나라의 산야에 뿌린 더운피, 바친 열혈의 청춘을 천만마디의 말과 글에도 다 담을 수 없다. 조선전선에서의 ２년 ９개월에 걸친 가렬한 전투행정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양련제, 구소운을 비롯한 수많은 영웅전사들을 배출하였다. 《월봉산영웅중대》, 《양근사영웅소대》와 같은 영웅대대, 영웅중대, 영웅소대 등 집체공신구분대들이 나왔다.

영웅은 결코 전선에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위훈은 싸움마당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얼음구멍에 빠진 조선소년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된 라성교렬사, 림진강변의 마을사람들이 강을 안전하게 건느게 하기 위해 목숨걸고 적비행기를 유인한 지원군용사들을 비롯하여 유명무명의 렬사들이 조선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쳤다. 조선인민을 친부모형제와 같이 여기였기에 그들은 전투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밭갈이와 씨뿌리기, 가을걷이를 도와주고 파괴된 저수지와 동뚝, 도로와 다리들을 복구해주었다. 주인집마당을 쓸어주고 물도 길어주며 자기들의 군량을 절약하여 많은 전재민들을 도와주는 지원군장병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준엄한 전화의 나날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었다. 자기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는 지원군장병들을 우리 인민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였다. 적기의 폭격속에서 지원군부상병을 구원하고 희생된 박재근, 방원근 등 지원군군인들을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렬사들, 불타는 고지에서 피흘리며 싸우는 지원군장병들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원호물자와 탄약, 포탄을 이고지고 전선을 넘나들던 평강의 인민들… 지원군장병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그들을 친형제처럼 극진히 위해주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성의 손길이 있었다. 하기에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은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불길속에서 진짜금을 알아낼수 있고 시련속에서 사람의 됨됨을 검열할수 있다.》

그 나날에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우의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게 되였다.

형제적중국인민의 훌륭한 아들딸들이 조선전쟁에 참전한 때로부터 ７６년의 년륜이 새겨졌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의 불멸의 공적과 영웅적위훈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조선과 중국은 결코 지리적으로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조중친선은 이렇듯 공동의 리념,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서로 피와 생명을 바쳐가며 싸운 공동의 투쟁속에서 맺어진 전투적우의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계로 이어져왔다. 오늘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우의의 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승화발전되고있다. 혈연적뉴대로 맺어지고 위대한 리념으로 굳건한 불패의 조중친선은 사회주의를 위한 한길에서 빛나게 계승될것이다.

긴장상태가 날로 악화되고있는 흑해

얼마전 나토사무총장이 흑해에서 군사활동을 보다 강화할 립장을 밝혔다. 지금까지 동부익측에 대한 병력전개를 강화해왔다고 하면서 그는 나토가 앞으로도 안보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필요에 따라 억제 및 방어태세를 조정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흑해수역에서의 긴장상태는 날로 악화되고있다.

이런 속에서 로씨야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나토의 기도는 심상치 않은 사태를 예고하고있다.

흑해에서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대치상태가 첨예해지고있는것은 이 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나토의 책동에 기인된다.

21세기에 들어와 나토는 발뜨해로부터 흑해를 거쳐 남깝까즈에 이르는 넓은 지대에 아치형의 포위환을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삼고 동쪽에로의 확대를 끊임없이 추구하여왔다.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아조브해와 잇닿아있는것으로 하여 흑해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군사전략적요충지로 되고있다. 특히 흑해와 까스삐해사이에 위치한 깝까즈지역에는 가스와 원유를 비롯한 에네르기자원이 풍부하다.

그로부터 나토는 흑해에서의 로씨야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저들의 세력권을 넓힐 목적으로 군사적간섭을 확대하였다.

최근에도 나토는 벌가리아에 신형무기배비와 병력투입을 위한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고 대규모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현재 이 나라에는 1 200명의 나토무력이 항시적으로 주둔해있다. 로므니아에도 나토의 첨단군사기술기재들이 납입되고있다. 지난해에는 뽈스까에 도이췰란드의 《유로파이터》전투기들이 새로 배비되였다.

뛰르끼예가 몽뜨뢰협약에 따라 2022년부터 흑해연안국이 아닌 나라들의 군함을 흑해에로 통과시키지 않고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갓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몇해사이에 이 수역에서 로씨야를 반대하는 나토의 군사적도발소동은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있다. 올해 5월 흑해에서 《오펙스-26》이라는 명칭의 해상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것을 비롯하여 《씨 쉴드》, 《씨 브리즈》, 《데이션 폴》과 같은 도발적인 불장난소동들을 뻔질나게 벌려놓고있다.

지금 흑해에서는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의 공방전이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의 패배에 대한 앙갚음으로 로씨야의 무역선,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있으며 지어 외국국적의 선박들에까지 무인기와 미싸일타격을 가하고있다. 흑해와 아조브해상공에서 로씨야반항공무력에 의해 격추되는 우크라이나무인기들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대에 달한다. 최근에는 뛰르끼예상선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의 무모한 반로씨야대결책동이 흑해연안의 성원국들을 통한 나토의 적극적인 군사적지원에 의해 벌어지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적인 실례로 로므니아의 꼰스딴짜항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지원의 주요통로로 되고있다. 로씨야는 서방의 호전적인 계획들로부터 흑해연안지역을 수호할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였으며 흑해함대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고있다.

쌍방의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이처럼 예민한 수역에서 《억제태세조정》의 간판밑에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높이려는 나토의 기도가 어떤 파국적후과를 몰아올지는 예측할수 없다. 이미 ２０２１년에 흑해수역에서 영국군함들이 로씨야 령해를 침범하였다가 경고사격을 받은 사실은 이 지역에서 사소한 우발적사고도 군사적충돌의 불길로 타번질수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９월 슬로벤스꼬수상은 서방이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사이의 대결을 로씨야와 나토사이의 충돌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를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의 발언에 비추어보아도 흑해는 명백히 나토에 의해 로씨야를 반대하는 또 하나의 대결장으로 되여가고있다.

예멘 후티무장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석유시설 공격

[쿠웨이트시 10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윤가] 사나소식: 예멘 후티무장이 14일 대량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및 무인기를 사용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좌흐란에 위치한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석유회사 시설, 리야드에 위치한 킹칼리드 국제공항 및 아람코정유소에 대규모 군사공격을 실시했으며 《이 공격으로 목표시설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후티무장 대변인 야히야 사리아는 당일 소셜미디어에 성명을 발표해 이번 작전이 최근 예멘 수도 사나와 후티무장 통제 지역에 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낸 타격 경고를 리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이번 충돌이 격화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예멘을 상대로 공습과 미사일 타격을 총 2281차례 실시해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초래했다. 성명은 이번 미사일·무인기 공격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 시설이 파손되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짚었지만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인명피해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성명은 후티무장이 향후 며칠간 사우디아라비아내 목표물을 계속 공격할 것이며 공항과 석유시설을 중점적으로 타격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한 국제 해운회사와 공항·기업시설내 일반인과 사업일군들에게 후티무장의 《합법적 공격대상》이 되였다면서 즉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14일 새벽 성명을 통해 13일 저녁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좌흐란 소재 한 건물이 공격받아 《제한된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련합군 대변인 투르키 알말리키는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련합군이 당일 후티무장이 리야드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요격, 파괴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살륙만행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살륙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１９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시와 한 유니스시 등 여러 지역에서 피난민천막과 팔레스티나인들의 모임장소에 공습을 가하여 5명을 살해하고 ２０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해 １０월 정화합의이후 계속되는 이스라엘군의 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인사망자수는 １ ５２２명, 부상자수는 ５ ４２１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발해국의 시조 대조영

발해국(698-926년)은 고구려를 계승하여 228년간 동방일각에서 굳센 기상과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강대한 봉건국가였다.

대조영(?-719년)은 발해봉건국을 창건하고 그 륭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발해국의 시조왕이다. 대조영은 고구려말기에 북류 송화강(당시의 송말수)류역의 위력한 고구려지방정치세력출신으로 알려진 대중상의 아들로 태여났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후 국가회복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이 도처에서 진행되였다. 특히 동모산(길림성 돈화시 오동성근방)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백두산 주변에서 세차게 벌어졌다.

대중상은 목단강상류류역을 중심으로 고국회복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면서 정치군사적토대를 축성하고 세력을 급속히 늘여 나갔다.

당나라는 고구려유민들의 국가회복을 가로막기 위하여 대량의 고구려유민들을 당나라내지로 강제이주시켰다. 고구려유민들은 동방에서 당나라세력을 몰아내고 료동으로 진출하여 고구려국가를 회복할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696년 5월에 대조영을 선두로하는 영주지방(료녕 조양)의 고구려유민들은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거란인, 말갈인 등 여러 종족들과 련합하여 당나라통치를 반대하는 큰 규모의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군은 영주성을 들이쳐 도독을 처단하고 이 일대의 당나라군대를 격파한 다음 손만영은 거란폭동군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진격하고 대조영이 거느린 고구려, 말갈인 부대는 동쪽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이 과정에 폭동군의 수는 수십만에 이르렀다. 승리를 확대하여 나가던 대조영이 이끈 고구려폭동군은 천문령(료녕성 창무현 서쪽)에서 당나라군대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이 싸움에서 적장 리해고는 대패하여 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 돌아갔다.

20살안팎의 젊은 나이에 장수로 선발된 대조영은 천문령싸움에서 매우 날래고 용감하며 용병을 잘하였다,

폭동군은 계속 동쪽으로 진격하여 료하를 건느고 다시 송화강상류 휘발하를 건너 부이령산줄기의 동쪽기슭에 자리 잡은 동모산(길림성 돈화시 오동성근방)에 이르렀다. 진군과정에 수많은 고구려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들었으며 곳곳에서 항전을 벌리던 정치세력들이 가담하였다.

그후 당나라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엄중한 위기가 닥쳐 왔던 660년대 말에 대조영은 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의 불길이 치솟는 전방에 나가 있었다.

고구려멸망직후부터 당나라군사들을 몰아내고 고국회복을 위한 고구려유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주도하던 대조영은 698년에 마침내 옛 고구려땅에 발해국의 전신인 진국을 세웠다.

대조영과 대중상은 처음에 고구려의 옛 령토를 차지한 대국을 세우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고구려의 옛 령토가운데서 일부 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였으며 료동지역을 비롯한 고구려 각지에서 제각

기 항전을 벌리고 있는 고구려유민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은 비록 령토는 작고 영향력도 크지 못하였으나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 하나의 국가체계를 갖추고 출현한 진국은 고구려유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그 투쟁성과도 날로 확대되였다. 그리하여 진국은 7세기 90년대중엽에 이르러 사방 2천리의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으며 앞으로 강대한 고구려와 같은 대국을 세울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진국》이라는 나라 이름은 위력을 사방에 떨치는 큰 나라라는 뜻이였다. 진국의 1대왕은 대조영이였고 초기수도는 동모산이였다. 진국은 713년에 나라이름을 《발해》로 고치였다.

대조영은 재위기간에 나라가 급속히 발전할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 놓았다.

발해는 처음에 수도를 동모산에 정하였다가 국력이 강해지고 령토가 넓어 짐에 따라 흑룡강성 녕안시에 큰 규모의 수도성을 건설하고 755년에 이곳으로 수도를 옮겼다.

발해국의 시조왕인 대조왕은 719년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발해사람들은 그후 대조영을 조상으로 숭배하였다고 한다.

한때 강대하였던 발해는 9세기말-10세기초에 와서 나라안의 계급적모순이 커져 국력이 약해 지였고 이러한 때에 거란침략자들의 침공을 받아 926년에 자기 존재를 마치게 되였다.

228년간 존재하였던 발해국은 고구려의 정신을 계승하였다.

만약 발해국이 없었더라면 고구려의 정신은 계승되지 못하고 력사는 중단되였을 것이다.

대조영은 고구려를 계승발전시키고 후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학사 김형철

수명연장 1위 운동 공개!



최근 한차례 연구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1위 운동이 걷기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버드대학 연구팀의 이번 연구는 11만명을 30년 넘게 추적조사했고 여러가지 일반운동과 비교한 결과 전체사망위험을 낮추는 효과만 놓고 볼 때 걷기가 달리기나 웨이트트레이닝(举铁)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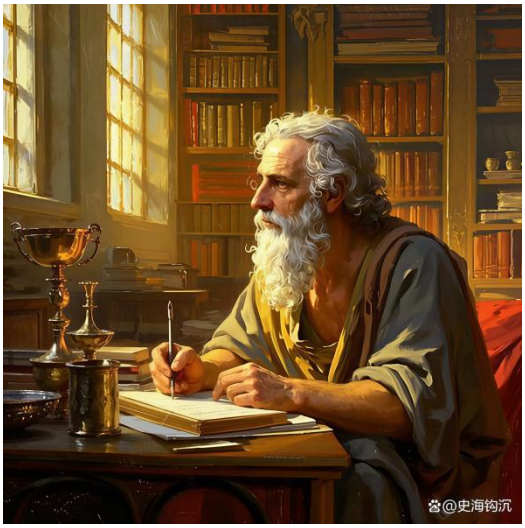
2023년 미국 심장학회 잡지에 실린 한 분석에 따르면 하루 약 2600보를 걸으면 사망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시작하고 약 2800보를 걸으면 심혈관질환 위험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

걸음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과 심혈관질환 위험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 최적의 걸음수는 각각 8763보와 7126보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루에 8763보와 7126보를 걸을 때 사망과 심혈관질환 위험이 가장 낮았다. 그 이상 더 걸어도 수익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인민넷-조문판

阿 基 米 德



阿基米德(Archimedes，公元前 287 年-公元前 212 年)古希腊伟大的哲学家、百科式科学家、数学家、物理学家、力学家，静力学和流体静力学的奠基人。

公元前 287 年，阿基米德出生于西西里岛叙拉古附近的一个小村庄，他出生于贵族，家庭十分富有。

阿基米德的父亲是天文学家兼数学家，学识渊博，为人谦逊。“阿基米德”在希腊语中的意思是大思想家，阿基米德受家庭的影响，从小就对数学、天文学特别是古希腊的几何学产生了浓厚的兴趣。

公元前 267 年，阿基米德被父亲送到埃及的亚历山大城跟随欧几里得的学生埃拉托塞和卡农学习。

亚历山大城位于尼罗河口，是当时世界的知识、文化贸易中心，学者云集，人才荟萃，被世人誉为“智慧之都”。举凡文学、数学、天文学、医学的研究都很发达。

阿基米德在亚历山大跟随着多位著名的数学家学习，他在这里学习和生活了许多年，兼收并蓄了东方和古希腊的优秀文化遗产，对其后的科学生涯产生了重大的影响，奠定了阿基米德日后从事科学研究的基础。

当时的欧洲，在工程和日常生活中，经常使用一些简单机械，譬如：螺丝、滑车、杠杆、齿轮等。

阿基米德花了许多时间去研究，发现了“杠杆原理”和“力矩”的观念。

杠杆原理：满足下列三个点的系统，基本上就是杠杆：支点、施力点、受力点。杠杆原理亦称“杠杆平衡条件”：要使杠杆平衡，作用在杠杆上的两个力矩（力与力臂的乘积）大小必须相等。

阿基米德非常重视试验，一生设计、制造了许多仪器和机械，值得一提的有举重滑轮、灌地机、扬水机以及军事上用的抛石机等。

对于经常使用工具制作机械的阿基米德而言，将理论运用到实际的生活上是轻而易举的。阿基米德极可能是当时全世界对于机械的原理与运用了解最透彻的人。

阿基米德和雅典时期的科学家有着明显的不同，就是他既重视科学的严密性、准确性，要求对每一个问题都进行精确的、合乎逻辑的证明；又非常重视科学知识的实际应用。

阿基米德在数学上也有着极为光辉灿烂的成就，特别是在几何学方面。阿基米德的数学思想中蕴涵微积分，阿基米德的《方法论》中已经“十分接近现代微积分”，这里有对数学上“无穷”的超前研究，贯穿全篇的则是如何将数学模型进行物理上的应用。

阿基米德将欧几里德提出的趋近观念作了有效的运用。他利用“逼近法”算出球面积、球体积、抛物线、椭圆面积，后世的数学家依据这样的“逼近法”加以发展成近代的“微积分”。阿基米德还利用割圆法求得π的值介于 3.14163 和 3.14286 之间。阿基米德的几何著作是希腊数学的顶峰。他把欧几里得严格的推理方法与柏拉图鲜艳的丰富想象和谐地结合在一起，

达到了至善至美的境界，从而“使得往后由开普勒、卡瓦列利、费马、牛顿、莱布尼茨等人继续培育起来的微积分日趋完美”。

阿基米德发展了天文学测量用的十字测角器，并制成了一架测算太阳对向地球角度的仪器。

阿基米德还曾经运用水力制作一座天象仪，球面上有日、月、星辰、五大行星。根据记载，这个天象仪不但运行精确，连何时会发生月蚀、日蚀都能加以预测。

阿基米德还认为地球可能是圆的。晚年阿基米德开始怀疑地球中心学说，并猜想地球有可能绕太阳转动，这个猜想一直到哥白尼时代才被人们提出来讨论。

相传阿基米德给叙拉古赫农王的一顶纯金的王冠做检验时，用测定物体在水中排水量的办法，来确定物体的体积的方法，证明了王冠里掺进了其他金属。

阿基米德从中发现了浮力定律（阿基米德原理）：物体在液体中所获得的浮力，等于它所排出液体的重量。

在阿基米德年老的时候，罗马军队的最高统帅马塞拉斯率领罗马军队包围了他所居住的城市，还占领了海港。阿基米德虽不赞成战争，但又不得不尽自己的责任，保卫自己的祖国。阿基米德眼见国土危急，护国的责任感促使他奋起抗敌，于是阿基米德绞尽脑汁，日以继夜的发明御敌武器。阿基米德利用杠杆原理制造了一种叫作石弩的抛石机，能把大石块投向罗马军队的战舰，或者使用发射机把矛和石块射向罗马士兵，凡是靠近城墙的敌人，都难逃他的飞石或标枪。

有一天叙拉古城遭到了罗马军队的偷袭，而叙拉古城的青壮年和士兵们都上前线去了，城里只剩下了老人、妇女和孩子，处于万分危急的时刻。就在这时，阿基米德为了自己的祖国站了出来。

阿基米德让妇女和孩子们每人都拿出自己家中的镜子一齐来到海岸边，让镜子把强烈的阳光反射到敌舰的主帆上，千百面镜子的反光聚集在船帆的一点上，船帆燃烧起来了，火势趁着风力，越烧越旺，罗马人不知底细，以为阿基米德又发明了新武器。就慌慌张张地逃跑了。

公元前 212 年，古罗马军队入侵叙拉古，阿基米德被罗马士兵杀死，终年七十五岁。阿基米德的遗体葬在西西里岛，墓碑上刻着一个圆柱内切球的图形，以纪念他在几何学上的卓越贡献。

阿基米德对数学和物理的发展做出了巨大的贡献，为社会进步和人类发展做出了不可磨灭的影响，即使牛顿和爱因斯坦也都曾从他身上汲取过智慧和灵感，他是“理论天才与实验天才合于一人的理想化身”，文艺复兴时期的达芬奇和伽利略等人都拿他来做自己的楷模。

阿基米德享有“力学之父”的美称，世界三大数学家指古希腊的阿基米德、英国的艾萨克·牛顿与德国的约翰·卡尔·弗里德里希·高斯，三人因其在不同历史时期对数学及科学领域的奠基性研究而被广泛认可。 阿基米德名言：“给我一个支点，我就能撬起整个地球。”

예 멘

인도양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 아라비아반도의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는 예멘공화국은 북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는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있으며 서부와 남부는 인디아양 연해인 홍해, 아덴만에 면하여 있다.

면적은 52 만 7 970 ㎢ 이고 전국을 21 개성과 1 개의 직할시로 나누며 수도는 사나이다.



인구는 4060 만명이고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지세는 대체로 서부가 높고 동부가 낮다. 서부는 고원과 산지가 위주인데 예멘은 아라비아반도에서도 제일 높은 지대이다.

서쪽에 위치하고있는 서부산지는 해발높이가 2 000～3 000m 이고 동부는 고원으로서 해발높이는 1 600m 이다. 국토의 63%가 리용할수 없는 황무지이다.

해안선을 따라 2000km 의 길이에 30～60km 넓이의 좁은 평원이 있다.

예멘의 대부분 지역은 열대기후대에 놓여있다. 연해평원지구는 기후가 덥고 중부고원지구는 기후가 따뜻하며 동부사막의 기후는 건조하다.

년평균최고기온은 39℃이고 최저기온은 -8℃이다.

서부지역은 아라비아반도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지구인데 장마철은 3월-5월과 7월-9 월이다.

남부지구의 년강수량은 1000mm 이상이고 평원지구에서의 강수량은 400mm 이하이며 사막지구에서는 비가 적게 내린다.

강하천망은 기후조건과 관련하여 발달하지 못하였다. 고정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산지들에만 있고 그밖의 지역들에는 비가 내리는 시기에만 물이 흐르는 림시하천들이 있을뿐이다. 사막지대에는 오아시스들이 널려있다.

주민구성은 단순한데 아랍족이 92.8%이고 기타가 7.2%(그중 소말리아인이 3.7%, 흑인이 1.1%, 남아시아인이 1%, 기타가 1.4% 를 차지함.)를 차지한다.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의 99. 9%인데 그중 시아파와 순니파가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대체로 북부사람들은 시아파이고 남부사람들은 순니파이다.

전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랍족을 예멘아랍인이라고도 한다. 유럽대인종 인디아-지중해인종에 속한다. 일부 연해지구와 쏘꼬트라 (Socotra)섬 등지의 예멘인들은 아프리카-오세안주대인종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며 하드라마우트 (Hadramawt)에서 사는 예멘인들은 아시아대인종의 성분을 함유하고있다.

예멘은 아랍세계에서 력사가 오랜 지역의 하나이다. 여기서는 예로부터 농업이 발전하여 주민들이 풍족하게 생활하였다고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곳을 비옥한 아랍이라고 하였다.

B.C 8세기에 일찌기 왕국을 세웠으나 외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통치를 받아왔으며 16세기에는 오스만제국에 병합되였다. 17세기초 예멘인민은 반침략투쟁을 벌려 오스만군대를 자기들의 령토에서 몰아냈다.

1872 년 뛰르끼예는 다시 예멘의 전 령토를 점령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839 년부터 예멘남부는 점차 영국의 식민지와 보호령으로 전락되였다.

북부는 20세기초에 뛰르끼예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1962 년에 아랍예멘공화국으로 고치였다.

남부는 1967년에 독립하여 남부예멘인민공화국을 세우고 1970년에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고치였다.

1990년 5월 22일 아랍예멘공화국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하여 예멘공화국을 세웠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주로 농사와 목축업에 종사하는데 주요재배작물은 강냉이, 조, 밀, 보리, 수수, 대추, 담배, 목화 등이다. 물이 부족하여 지하수나 비물을 리용하여 관개를 하지만 식량은 자급하지 못하고있다. 사막지대사람들속에서 유목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염소,양, 하늘소,약대 등을 방목하였다.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천, 옷, 머리장식. 주단, 칼, 등을 만든다. 현재 이러한 전통적인 직업외에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

주요지하자원은 석유, 금, 은, 돌소금, 망간, 철, 동, 류황, 석회석 등이다.

1980년대에 유전이 발견되여 석유, 목화, 커피 등을 수출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철길이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이다.

교육정도가 낮아 문맹률이 62%이다,

경제가 락후하여 세계에서 가장 락후한 나라들에 속하고있다.

대외적으로 예멘은 평화와 친선, 불간섭,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아랍인민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00여개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있다.

주민들의 식생활과 옷차림은 이슬람교의 풍습을 따르고있다.이슬람교도들은 매일 5차례나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는다.

군대들도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아래는 치마와 같이 생긴 흰 천의 통옷을 입고있다. 서부고원에서 카트라는 마취제식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잎은 차와 비슷하며 씹으면 떫은 맛이 있고 그 잎의 즙을 먹으면 약간 취한다. 이슬람교의 규범에 따라 음주가 금지되여있어 이 나라 사람들은 카트의 잎을 씹는 습관이 있다.

살림집은 대체로 돌과 벽돌, 블로크로 지으며 도시근로자들은 현대적인 다층주택들에서 많이 살고있다.

사나에서는 살림집과 공공건물의 창문이 모두 흰틀로 되여있는것이 특색있다.

2004년부터 북부의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있는 시아파민병조직과 정부군사이에 군사적충돌이 거듭되였다.

2014년부터 정부군과 반정부세력사이의 충돌이 내전으로 확대되였으며 그해 9월 반정부세력이 수도 사나를 장악하였다.

2015년 3월부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련합군이 전개되여 반정부세력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였다. 무장분쟁으로 수백만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북부의 시아파민병조직과 정부군사이의 군사적충돌이 격화되고있다. 시아파민병조직은 북부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홍해의 해안을 점령하면서 우세를 차지하고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속에서도 수세에 처하여 있다.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었다.



말소리흐름과 문장의 발음

억양은 높낮이선, 률동, 끊기, 속도, 소리빛갈, 문장소리마루 등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요소들가운데서 높낮이선과 률동, 끊기는 억양의 기본요소이며 그밖의 다른 구성요소들은 말하는 목적과 환경, 말하는 사람의 립장과 태도, 말하는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화될수 있는 부차적구성요소이다.

높낮이선은 문장의 발음에서 소리를 높이고 낮추는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굴곡이며 억양의 기본줄기를 이루는 흐름선이다.

높낮이선은 말소리흐름을 타고 흐르는 소리높이의 련속적인 변화로 얻어지는 굴곡선이다.

소리높이의 차이와 변화형식에 따르는 소리의 흐름새를 높낮이 또는 음조라고 한다. 높낮이선은 말소리흐름에 덧실려 나타나는 여러 높낮이(음조)들의 련속에 의해 얻어진다.

높낮이선은 억양이 음악적선률성을 띠게 하며 억양에서 민족적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요인으로 된다.

우리 말 억양의 높낮이선은 높고낮은 굴곡이 심하지 않고 점잖게 흘러가는것으로 하여 아름다운 음악적느낌을 준다.

이러한 높낮이선으로 하여 우리 말 억양은 유순하고 아름다우며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적미감에 잘 어울리는 세련된 억양으로 된다.

높낮이선의 구조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경계높낮이이다.

소리토막들을 이어주고 소리동강과 소리매듭을 경계지어주며 문장의 의미를 현실적인것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매 발음단위들의 마지막부분에 실리는 높낮이선이다.

이러한 높낮이를 경계높낮이(또는 경계음조)라고 한다. 경계높낮이는 해당 발음단위의 마지막소리마디의 소리높이변화모양에 따라 수평조, 내림조, 오름조로 갈라본다. 수평조는 마지막소리마디에서의 높낮이가 그앞에서의 소리높이나 변화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류형의 경계높낮이이다.

내림조는 마지막소리마디가 앞소리마디와 다른 높이로 시작하여 변화방향을 바꾸면서 낮아지는 류형의 경계높낮이이다.

오름조는 마지막소리마디가 앞소리마디와 다른 높이로 시작하여 변화방향을 바꾸면서 높아지는 류형의 경계높낮이이다.

끊기란 말소리흐름속에서 발음을 하지 않고 쉬거나 일단 소리내는 행동을 중단함으로써 말소리흐름을 끊는 현상을 말한다.

끊기는 말소리흐름에서 발음단위들을 구획지어주며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더 정확히, 더 잘 나타낼수 있게 한다.

끊기에 의해 소리동강과 소리매듭, 소리토막과 같은 발음단위들이 구획되고 구조적으로 련결되여간다. 끊기는 그 길이에 따라 긴끊기와 중간끊기, 짧은끊기로 구분한다.

긴끊기는 발음을 일단 끝내고 모든 발음기관이 본래의 자기 자리에 놓이게 하는 끊기로서 시간적으로는 보통 반박자 또는 한박자정도 즉 0.5~1.2초정도, 보통속도에서 4~5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동안만큼의 길이를 가진다.

긴끊기는 문장발음의 끝에 오면 말소리흐름에서 소리동강과 소리동강의 경계를 나타낸다. 중간끊기는 발음기관이며 제자리에 돌아가서 쉬는것이 아니라 다만 발음행위만을 중단함으로써 생기는 끊기로서 시간적으로는 0.2~0.5초정고, 보통속도에서 1~3개의 소리마디를 발음하는 동안만큼 발음을 중단하는 끊기이다. 중간끊기는 보통 소리매듭을 단위로 하여 나타낸다.

짧은끊기는 발음행위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생기는 끊기로서 시간적으로는 0.1~0.2초정도로 극히 짧게 발음을 중단하는 끊기이다.

짧은끊기는 주로 소리토막을 단위로 하여 그 경계에서 나타나며 억양의 률동성을 보장하는 운률적수단으로 리용된다.

률동은 일반적으로 어떤 요소가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시간적으로 일정한 사이를 두고 조화롭게 규칙적으로 반복되며 진행되는 움직임을 률동이라고 한다.

언어의 률동이란 류사한 소리성질을 가지는 언어적요소들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조화롭게 어울리며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현상을 말한다.

률동은 억양을 이루는 기본구성요소의 하나이다.

언어의 률동이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말에서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도 언어률동에 담아 표현할수 있다.

말의 속도란 말소리흐름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말한다.

말의 속도에는 절대적속도와 상대적속도의 두가지가 있다.

말의 속도가 지내 빠르면 발음을 정확히 할수 없고 듣는 사람도 정확히 알아들을수 없으며 너무 느리게 하면 지루하고 맥빠진것처럼 된다.

소리빛갈은 발음의 전반흐름을 특수하게 꾸미여 거기에 개성을 부여하는 억양의 구성요소이다.

소리빛갈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와 혁명적기백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씩씩하고 건전하며 맑고 부드럽다.

간드러지고 연약한 소리빛갈, 우악스럽고 거친 소리빛갈은 문화어와는 인연이 없다.

소리빛갈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맑은소리와 흐린소리. 굵은소리와 가는소리, 깊은소리와 얕은소리, 속삭임소리와 째는소리 등으로 갈라본다.

문장소리마루란 문장안의 어떤 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두드러지게 발음하는 현상을 말한다.

문장소리마루는 문장의 뜻을 명확하게 하거나 표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장편소설 # 림꺽정

홍명희 원작
홍석중 윤색

림꺽정의 서울모험

(전호에서 이음)

이때 조선팔도에는 량반놈들과 부자놈들을 반대하여 곳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칼을 들고 떨쳐일어섰다.

팔도중에서도 황해도가 제일 많았고 황해도중에서도 청석골사람들의 명성과 기세가 제일 요란했다.

청석골사람들이 안성을 습격한 이후로는 량반놈들이 더는 그들을 화적이나 도적의 무리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릴수가 없었다.

백성들 누구나가 청석골사람들이 량반놈들을 반대하여 떨쳐나선 의로운 사람들이라는것을 잘 알게 되였기때문이였다.

안성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청석골사람들은 련이어 황해도일대에서 큰 싸움을 벌려 량반놈들과 부자놈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량반놈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였다. 청석골사람들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없애버리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세상이 위태로와질수 있다고 생각했기때문이였다.

놈들은 청석골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석골사람들은 놈들이 달려들기 전에 그놈들과 맞받아 싸울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지금까지는 청석골두령들가운데 찍어놓은 대장이 없었다.

일이 생기면 여러 두령들이 함께 모여앉아 의논하고 결정하였다.

의논할 때 말을 꺼내고 말을 맺는것은 지금까지 오가가 하였다.

누가 시켜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의 나이가 제일 많고 또 청석골에서 제일 오랜 사람이라 자연히 그렇게 되였던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오가자신이 자기가 대장재목이 못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지금에 와서는 종전처럼 대장이 없이 여러 두령들이 의논을 하여 일을 처리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리봉학과 의논하고 림꺽정을 대장으로 뽑을 생각을 하게 되였다.

어느날 여러 두령들이 도회청에 모여앉아 무기를 더 마련해야 할 문제를 의논하였다. 그 의논이 끝난 다음 오가가 여러 두령들에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 한마디 할것이 있소.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고큰 일을 여러 사람이 의논하여 정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속에서 대장 하나를 뽑아서 우에 받들구 대장의 명령으루 일을 하면 좋겠소.》

오가의 말을 들은 여러 두령들은 모두가 좋다고 찬성하였다.



그들도 오가와 같은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있었던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여러 두령들이 도회청에 다시 모여앉았다.

오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대장을 뽑읍시다. 내 생각엔 의논할것두 없을것 같소. 우리 림두령을 대장으루 모십시다.》

여러 두령들은 일제히 좋다고 소리를 쳤다.

오가는 사람 하나를 시켜서 미리 간밤에 준비하여놓았던 주홍색의자를 도회청 한가운데 놓도록 하였다.

그는 서림과 함께 림꺽정에게 가서 그 의자에 앉기를 청했다.

서림과 오가가 꺽정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꺽정은 손짓으로 말리고 저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서 의자에 앉았다.

림꺽정이 대장의 자리에 앉은 다음 오가는 여러 두령들과 함께 줄을 지어 군례로 인사를 하고 뒤이어 청석골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새 대장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새 대장이 된 꺽정은 여러 두령들의 의견을 물어서 서림을 종사관으로 정하였다.

서두령이 서종사로 변한 이외에 여러 두령들은 종전대로 두령이라고 했고 군사들의 우에 각각 군관을 정하여 패별로 군관들이 군사를 통솔하게 하였다.

꺽정이 대장으로 된지 며칠 안되였을 때였다.

동쪽 깊은 내와 북쪽에서 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뒤미처 남쪽 양지말과 서남쪽 탑고개와 서쪽 금교역말에서도 관군이 쳐들어온다는 급한 소식이 날아왔다.

림꺽정은 우선 관군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두령들이 거느린 군사들을 내보냈다.

청석골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며 근처마을들에서 로략질을 하던 관군놈들은 청석골군사들에게 한바탕 얻어맞고 쫓겨갔다.

그러나 뒤따라 밀려올 대군이 문제였다.

림꺽정은 당분간 관군과 정면으로 맞서는것이 불리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아직은 군사들도 적고 무기와 식량도 부족했다. 그는 좀 힘을 키울 때까지 관군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기로 작정하였다.

겁이 많은 서림은 싸움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는 꺽정의 말에 적극 찬성해나섰다.

림꺽정은 강원도 이천에 있는 광복산을 새 자리로 정하였다.

그런데 관군놈들이 청석골을 포위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포위망을 뚫고 광복산으로 빠져나가는것이 어려운 일이였다.

림꺽정은 서림과 함께 며칠밤을 새우며 관군을 속여넘길 계책을 꾸몄다.

계책이 정해진 그날 저녁무렵이였다. 서림은 김억석이라고 부르는 군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 군관은 량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안해와 딸을 잃고 남은 아들 하나와 함께 도망하여 청석골로 찾아온 사람이였다.

림꺽정은 김억석이 량반놈들에 대한 원한이 깊은 사람일뿐아니라 싸움에서 용감하고 의리도 깊은 사람이란것을 알고있었다.

그래서 바로 관군을 속여넘길 계책의 중요한 역할을 그에게 맡기기로 작정한것이다.

서림은 억석을 만나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솔발속으로 끌고들어가 앉았다.

영문을 모르고 끌려온 억석은 앞에 쭈그리고앉아 서림의 입만 쳐다보았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수도 있으니 아주 퍼더버리고 앉게.》

《좋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자네 우리에게 잡혀있는 관상쟁이하구 친하다지?》

느닷없이 관상쟁이가 말밥에 오르자 억석은 깜짝 놀랐다.



안성싸움을 떠나기 전에 렴탐하러 들어왔던 관상쟁이는 아직 청석골에 갇혀있었다.

억석이도 그놈이 갇혀있는 집에 수직을 자주 섰기때문에 웬만한 이야기는 서로 나누는 무간한 사이였다.

《관상쟁이가 자네더러 도망질을 시켜달라구 청하지는 않던가?》

《량반님들하구 맞서서 칼을 들구 날뛰다가는 천벌을 입는다구 같이 도망치자는 말을 슬그머니 비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되였네. 대장께서 자네한테 어려운 일을 하나 맡기시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없나?》

《무슨 일인가요?》

《자네가 관상쟁이놈하구 같이 도망하는것처럼 일을 꾸며가지구 금교역말에 틀구앉은 관군의 진중에 가서 우리가 며칠어간에 평산을 들이치려구 준비한다는 말을 퍼뜨리게. 관상쟁이놈은 일부러 우리에게 들어온 렴탐군이니까 그놈의 말을 관군이 믿을걸세. 관군이 그 말을 듣구 평산을 지키러 가면 그틈에 우리가 다른 곳으루 빠질 작정인데 이것만은 뉘게든지 말을 말게.》

《그럼 저는 다시 제 사람들한테 못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러면 다시 도망올 틈이야 없을라구.》

《십중팔구 관군놈들의 손에 잡혀 옥귀신이 되기 쉬울걸요.》

《이 사람아, 관상쟁이놈한테는 자네가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자기는 살구 자네만 옥안에 처박히도록 놔둘텐가? 그렇지 않더라도 자네와 자네 아들이 청석골에 잡혀와서 고생하던 사람이라고 하면 옥안에 들어갈리 만무하니 념려말게.》

《그놈들이 제 말을 믿을가요?) 《관상쟁이놈하구 잘 짜게. 관군놈들이 자네 말은 안 믿더라두 관상쟁이놈의 말은 그대로 믿을걸세.》

《글쎄요. 하긴 제가 그놈들의 손에 죽더라두 꼭 하여야 할 큰 일이긴 합니다. 그럼 제가 어디 한번 해보지요.》

《이번 일이 잘되면 우리 일에 큰 도움을 주는게라구 대장께서 신신당부하시데. 그럼 오늘밤을 넘기지 말고 꼭 약속대루 해주게.》

서림은 억석에게 다시한번 그루를 박고 솔밭에서 나왔다.

이날밤에 여러 두령들이 도회청에 모여앉아 일을 의논하고있을 때였다.

뒤산 파수막의 군관이 헐레벌떡 뛰여들어와서 두령들에게 보고했다.

《지금 군관 김억석이 제 자식과 관상쟁이놈을 데리고 어디루 가옵는데 가는 행처를 물은즉 대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구 어디 잠간 갔다온다구 대답하옵디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온지, 지금이라두 뒤쫓으면 붙잡을수 있을줄로 아룁니다.》

이 말을 들은 두령들은 서로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잘 알았다. 억석의 말이 정말이니 그리 알구 돌아가거라.》

앞에 앉았던 봉학이 이렇게 대답하며 파수막의 군관을 돌려보냈다.

며칠후에 서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금교역말에 있는 관군들이 모두 평산쪽으로 물러갔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꺽정은 곧 황천왕동을 불러다가 자세한 임무를 주고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서쪽의 관군이 평산으루 물러갔으니 신계까지 가는데는 위험할게 없다. 그렇지만 매사에 조심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해라. 우리를 이천읍가까이에 있는 건천역말에서 기다리는게 좋을게다. 혹시 기다리는게 어렵거든 먼저 군사들을 데리구 광복산으루 들어가거라. 건천역말앞에 큰 동구나무가 있으니 그 나무에 큼직하



게 칼자국 하나를 내 놓으면 네가 먼저 간줄 알구 찾지 않을테다.》

림꺽정의 령을 받은 황천왕동은 골라뽑은 열명의 군사들과 함께 길떠날 준비를 차렸다.

모두가 날파람있고 걸음 잘 걷는 군사들이였다. 천왕동은 그날 해질무렵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신계읍에 들어섰다.

그들은 사람들이 못 보는 으슥한 곳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되였다. 천왕동은 군사들과 함께 피나리보짐을 풀고 흰무리를 꺼내 배를 채운 다음 짧은 칼들을 손에 들었다.

이날밤에 황천왕동이 거느린 군사들은 비호같이 밀려다니며 맡은 일들을 해제꼈다.

한밤중에는 읍안에서 제일 권세를 부리던 량반놈의 집을 쳤고 닭이 울 무렵에는 신계와 우봉의 접경에서 깍쟁이로 소문난 어느 부자집을 치고 또 새벽녘에는 신계와 토산접경에서 관가놈들이 공물로 걷어들인 낟알창고에 불을 질렀다.

그다음에 그들은 이천땅으로 넘어가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신계와 우봉과 토산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자 청석골의 서북쪽을 포위하고있던 신계, 우봉, 토산의 관군들이 각기 자기 고을로 물러가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림꺽정이 천왕동을 신계에 보낸것이다.

두령이나 군사들이나 모두 날렵하고 걸음 잘 걷는 사람들을 골라 뽑은 리유는 하루밤사이에 세 고을을 오가며 소동을 벌려야 했기때문이였다.

서쪽과 서북쪽의 관군이 다 없어지자 동쪽과 남쪽을 포위한 송도관군들도 맥이 빠져버렸다.

그놈들은 깊은 내와 탑고개 두곳에 진을 치고 움직이지 못했다.

이러는 틈에 청석골에서는 밤에 낮을 이어 어려운 역사를 벌렸다.

여벌무기와 남은 량식과 무거운 세간들을 땅속에 파묻거나 굴속에 넣고 또 다른 곳에 옮겨 감추는 일이 이틀동안에 끝났다.

림꺽정은 먼저 안식구들을 떠나보냈다.

다음에는 두령들과 군사들을 다섯패로 나누어 각기 띄염띄염 간격을 두고 이천 광복산으로 떠나게 했다.

광복산은 산이 높고 험할뿐아니라 바위가 성처럼 빙 둘린 곳이다.

골안의 터는 시오리나 되여 청석골보다 훨씬 넓었지만 토배기로 사는 집은 불과 여라문집밖에 안되였다.

청석골사람들은 도착하자마자 급히 통나무를 베여 귀틀집들을 지었다.

잘 자리가 마련되니 당장 먹을 량식이 걸렸다.

꺽정은 오가와 서림을 내놓은 여섯두령을 둘씩 짝패로 만들었다.

그들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천읍과 근처읍들에 나가서 백성들의 원성을 받고있는 량반놈들의 집을 쳤다.

이렇게 되여 광복산으로 자리를 옮긴지 근 달포만에 겨울날 준비가 대충 갖추어졌다.

그런 다음 림꺽정은 곧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띄웠다.

그들은 이미 련계를 가지고 팔도 각처에서 활동하고있는 여러 패들에게 청석골 사람들이 광복산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림꺽정은 이곳저곳에서 제각기 고립되여 싸우고있는 크고작은 패들을 찾아내여 묶어세우는 일을 밀고나갔다.

림꺽정은 특히 운달산에 있던 박련중의 패를 찾기 위하여 무진 애를 썼다.

박련중의 패는 비교적 사람이 많았다.

또 옛날부터 박련중과 잘 아는 사이여서 쉽게 뜻이 통할수가 있을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박련중패의 행처는 알수가 없었다.



청석골사람들이 평양감영의 물건을 빼앗은것때문에 관군이 운달산을 공격한 뒤로는 비물처럼 땅속에 잦았는지 아주 사라져버리고만것이다.

그들이 관군의 공격을 받기 전에 안전하게 몸을 피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꺽정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그들의 행처를 찾았다.

어느날 서울에 조정의 움직임을 렴탐하러 갔던 황천왕동이 돌아와서 림꺽정과 여러 두령들에게 서울소식을 전했다.

말끝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 내가 한온이한테서 별소리를 다 듣구 왔소.》

황천왕동은 이제 하려는 이야기가 생각만 해도 우스운지 혼자 한바탕 껄껄 웃고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밤 남소문안에 가서 조정소식을 듣구난 뒤에 한온이가 나더러 대장형님이 분신술을 잘한다는데 아느냐구 묻습디다. 나는 그런 말을 못 들었다구 대답했더니 그의 말이 <이천 광복산에 들어가있는 림꺽정이가 영평땅에서두 나오구 철원땅에서두 나오구 또 서울안 여기저기서 나온다니 이게 분신술을 하지 않고 될 일인가? 분신술같은 희한한 재주를 가졌다는건 좋지만 점잖지 못하게 나무장사의 주머니밑천을 털구 또 애꾸눈이가 나서서 림꺽정이라구 하니 듣기가 좀 창피 하데.> 하구 껄껄 웃습디다.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구 자세한 이야기를 졸랐더니 다 털어놓는데 대장형님의 이름을 내대구 나무장사의 밑천을 빼앗은건 서울 버티고개에서 난 일이구 애꾸눈이가 대장형님의 행세를 한것은 영평 도덕여울근방이랍디다.》

천왕동이 이야기를 마치자 여러 두령들은 다같이 한바탕 웃으며 떠들었다.

《우리뒤를 쫓는 포도청놈들이 그런 잡것들에게 속아서 갈팡질팡하는지도 몰라.》

《포도청놈들이란게 산 말의 눈깔을 뽑아먹을 놈들인데 그따위걸 곧이들어?》

《포도군사놈들이 아니라두 나무군의 밑천을 털어가는 놈을 림꺽정이루 믿는 놈들이야 미친것들이지.》

여러 두령들이 받고차기로 떠드는데 림꺽정만은 눈살을 찌프리고 앉아서 아무말도 안했다.

그날 저녁 림꺽정은 다른 두령들은 다 돌려보내고 서림만 조용히 불러앉혔다.

《그 망할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소?》

《대장의 이름을 훔쳐가지구 못된짓을 하는 놈들 말입니까?》

《물론 그런 놈들의 말을 곧이곧대루 믿을 사람은 없겠지만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믿는다구 해두 그냥 두구 볼수가 없지 않소?》

서림은 눈을 감고 한동안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두 대장님이 서울에 한번 다녀오셔야 하겠습니다.》

《그건 왜?》

《가시다가 영평 도덕여울같은델 들리셔서 한놈 잡으면 버릇을 가르쳐주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구 꼭 서울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소?》

《겸사겸사해서 떠나신김에 서울까지 다녀오셨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게 서울조정의 소식을 제때에 물어들이는건데 그렇게 하자면 서울 남소문안같은데 믿음직한 패를 하나 만들어놓는게 좋습니다. 남소문안의 한온이가 이왕 그전부터 우리 일에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이번에 가시면 그 사람을 두령으로 하는 패를 하나 만들어주구 오시는게 어떻습니까?》

《그건 그런데, 한온이란 사람을 믿을 수는 있소?》



《글쎄요. --- 설사 못 미덥다구 하더라두 대장께서 친히 휘여놓으시면 장차 쓸모는 있겠지요.》

서림의 말을 들은 꺽정은 서울에 다녀올것을 결심하였다.

다음날 꺽정은 여러 두령들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각자가 할 임무를 자세하게 준 다음 군사 하나를 데리고 서울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한나절이 기울어서야 림꺽정은 영평 도덕여울에 다달았다.

꺽정은 데리고온 군사를 길가에서 쉬게 하고 여울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애꾸눈이 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어서 꺽정은 짜증이 났다.

그는 길가에 누워서 잠이 든 군사를 흔들어깨웠다.

군사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벗어놓았던 짐짝을 지려고 하였다.

《짐은 왜 지려느냐?》

《가시자는줄 알았습니다.》

《누가 가재?》 꺽정은 껄껄 웃었다.

이때 그들의 등뒤에서 호령소리가 들렸다.

《거기서 버릇없이 웃는 놈이 누구냐?》 꺽정이 돌아다보니 과연 못생긴 애꾸눈이 하나가 길옆 숲앞에 칼을 짚고 서있었다. 꺽정은 애꾸눈앞으로 다가갔다.

《오, 너 이제야 나왔느냐? 내가 너를 기다렸다.》

꺽정의 말에 애꾸눈은 당황했다. 그놈은 말을 더듬거렸다.

《넌 --- 나, 나를 --- 아는가부다만 난 너, 너같은 놈을 꿈에두 본적이 없다.》

애꾸눈은 이렇게 말하다가 앞으로 다가서는 꺽정에게 칼을 내들었다.

《내앞으로 다가서지 말구 게 좀 섯거라. 네가 장님이 아니면 이 칼이 눈에 보이겠지?》

꺽정은 곧 달려들어서 칼을 빼앗아버리려다가 그놈이 하는 꼴을 두고볼 생각에 발을 멈추었다.

애꾸눈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던 때와는 딴판으로 거드름을 부렸다.

《내 손에 칼이 있으면 호랑이에게 날개 돋친셈이야. 팔도군사가 눈앞에 몰려와두 눈곱자기만큼도 겁낼 내가 아니다.》

애꾸눈의 흰소리를 듣고 꺽정은 빙그레 웃었다.

꺽정이가 웃는것을 본 애꾸눈은 다시 얼떠름해서 슬금슬금 뒤걸음을 쳤다.

꺽정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네놈이 내앞에서 내뺄 생각이냐?》

애꾸눈은 얼른 뒤걸음을 멈추고 서서 입을 실룩했다.

《누가 뉘앞에서 내뺀단 말이냐? 네가 아마 도망칠 생각이 나는게다.》

《내가 네게 물어볼 말이 있다. 네 이름이 무어냐?》

《오라, 이름이나 듣구온줄 알았더니 내 이름두 아직 모르느냐? 내 성은 림가구 이름은 꺽정이다. 네 이름은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어냐구? 이놈아, 내가 림꺽정이다.》

애꾸눈은 너무나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못했다.

한동안이 지나자 헤헤 하고 바보웃음을 웃으며 어린아이 응석부리듯 말했다.

《참말이요? 무어 거짓말이지요? 웃는걸 보니까 거짓말이야?》

《미친놈이로구나.》

《대체 무슨 일루 나를 보러 오셨소?》

《네놈을 버릇 좀 가르치려구 왔다.》

《버릇을 어떻게 가르치실라우? 다 큰 놈을 종아리라두 때릴라우?》

《이놈아, 네 모가지를 돌려앉힐테다.》

《모가지를 돌려앉히면 앞을 못 보라구?》

《이놈이 나를 놀리지 않나.》



꺽정이 주먹을 부르쥐자 애꾸눈은 황급히 사정했다.

《잠간 그대루 서서 말 한마디만 들어주.》

그러고나서 무슨 말을 할듯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획 돌아서며 도망질을 치기 시작했다.

꺽정은 그놈의 뒤를 좇았다.

얼마 못 뛰여서 그놈은 칼을 내던지고 꺽정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두손으로 빌었다.

《이젠 버릇을 배웠습니다. 제발 용서합시오.》

《이놈아, 네가 내게 끝까지 대들었다면 혹시 용서해줄 생각이 났을지두 모르겠다. 그렇지만 칼을 가지구두 쓰지 못하구 도망질을 하는 너같은 놈은 용서할수 없다.》

《제가 원체 생각이 좀 부족한 놈인데 그런 말씀을 진작 해주시지요. 지금 칼을 도루 집어가지구 와서 대들어보겠습니다.》

애꾸눈은 새삼스럽게 일어나려고 했다.

《별 우스운 놈 다 보겠다.》

꺽정은 그놈을 발끝으로 걷어차서 뒤로 벌렁 자빠뜨렸다. 애꾸눈은 걷어채운 가슴을 부둥켜안고

《아이구 가슴이야, 아이구 죽겠네.》하며 엄살을 부렸다.

꺽정은 그놈의 머리맡에 와서 한발을 쳐들었다.

《너같은 놈은 손댈것두 없이 아주 밟아없앨테다!》

꺽정이가 정말 밟을듯이 발을 들먹거리니 애꾸눈놈은 얼른 두손을 내밀어서 그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다.

꺽정은 한손으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은 다음 발을 앞으로 들고 뒤로 채고 또 좌우로 휘둘러서 애꾸눈의 몸뚱이가 이리굴고 저리굴게 하였으나 그놈은 죽어라 하고 꺽정의 발목을 놓지 않았다.

《발목을 놓구 일어나거라.》

《이만큼 대들면 용서하실랍니까?》

애꾸눈은 꺽정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발목을 놓고 일어나며 곧 꿇어앉았다.

《그만하구 용서해주셔서 황감하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용서해준다더냐?》

《용서해줄테니 일어나라구 하셨지요?》

《이놈 보지? 거짓말에 인이 박혔구나.》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용서만 해주소이다.》 《용서 못하겠다.》

《그럼 다시 발목을 잡구 매달리리까?》

애꾸눈이 하는짓이 우스워서 한옆에 와섰던 군사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애꾸눈은 군사를 바라보며 사정했다.

《여보, 웃는분이 뉘신지는 모르지만 웃지 말구 어서 용서가 내리두룩 말씀 좀 해주시구려.》

그 말에 꺽정은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에 용기를 얻은 애꾸눈이 애결하였다.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럼 이 주먹으로 세개만 맞아라.》

꺽정이 주먹을 그놈의 앞에 내들었다.

《아이구. 싫습니다.》

《그럼 매를 맞아라.》

《그대루 용서해줍쇼.》

《네가 성은 림가냐?》

《본성은 로가올시다.》

《저런 놈 봐, 성두 림가가 아닌 놈이 내 이름을 가지구 못된짓을 했단 말이냐?》

《지금이라두 성을 림가루 고치시라면 두말않구 고치겠습니다.》

《미친놈같으니라구. 이름은 무어냐?》

《밤이올시다.》

《로밤이라 ---네 집안식구는 몇이냐?》



《잔뜩 둘뿐인데 그나마 하나는 그림잡니다.》

《너같이 수다스러운 놈은 처음 보겠다. 너무 수다를 부리면 입을 짜개놓을테니 조심해라.》

《둘이 있어야 할 눈깔은 하나만 있구 하나래야 쓸 아가리를 둘씩 가지면 저는 무엇이 되라구요?》

이러는 동안에 해가 저물었다.

꺽정은 로밤을 서울에 데려가려고 생각했다.

하여튼 영평 도덕여울에서 림꺽정행세를 하던 놈이 이놈이라는 소문을 서울에서부터 퍼뜨려놓아야 사람들의 의심을 풀러줄수 있을것이기때문이였다.

그날밤을 꺽정은 로밤이 숨어사는 숲속 움막에서 지냈다.

로밤은 꺽정에게 자기의 지나온 경력을 이야기하였다.

로밤은 본래 해주사람이다.

황해감영에서 장교노릇을 하였는데 힘골이 든든하고 입심이 좋아서 불과 몇년만에 백성들을 등쳐모은 재산이 한밑천 잘되였다.

그런데 그만 노름에 미쳐서 일년도 못되여 재산을 깡그리 잃었고 나중에는 엄청난 빚까지 걸머지게 되였다.

빚갚고 노름밑천을 마련하는 길은 도적질밖에 없었다.

어느날 밤 방망이를 들고 약산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을 털러나섰다가 젊은 중들의 무리매에 들어 그만 애꾸눈이 되였다.

빚단련이 무서워 집에도 못 들어가고 병신이 된채 한 일년 떠돌아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운달산의 박련중패한테 몸을 붙였다.

그렇지만 박련중은 로밤의 경력과 사람됨됨을 알게 되자 패에서 내쫓고말았다. 로밤은 박련중패에 있을 때 림꺽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운달산에서 쫓겨난 로밤은 이후 줄곧 혼자 돌아다니며 림꺽정의 이름을 대고 도적질을 해오는것이였다.

로밤이 박련중패에 있었다는 말을 들은 꺽정은 혹시 그가 련중의 지금 행처를 알수 있을가 해서 캐물었다.

그러나 로밤이가 거기서 쫓겨난것은 관군이 운달산을 공격하기 전이였기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있었다.

다음날 꺽정은 자기가 데리고온 군사와 로밤을 함께 거느리고 영평 도덕여울을 떠나 서울로 향하였다.

(다음호에 이음)



불로초샴푸





제품생산단위: 조선화장품무역회사

효 능: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세척이 잘 될뿐아니라 머리카락을 부드럽고 윤기나게 하여준다.

사용방법 : 적당한 량을 머리카락과 머리피부에 비벼서 거품을 충분히 낸 후 깨끗한 물로 씻어주십시오



평 양 말 공 장





